

與, '국회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

“헌법상 다수결 원칙 의회주의 원리 반해”

새누리당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위원장 주호영)는 지난달 30일 국회법(국회선진화법) 조항이 국회의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의 심판을 청구했다.

새누리당 국회법 정상화 TF는 이날 자료를 내고 “국회가 경제활성화 및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데도 엄격히 국회법 규정으로 여야 합의 없이는 어떠한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파행적으로 운영된 국회의 비정상화를 정상화하기 위해 제출한다”며 청구 사유를 밝혔다.

이번에 청구하는 권한쟁의 내용은 ‘심사기간 지정’과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 2개의 조항으로 정의화 국회의장과 정희수 기재위원장이 국회선진화법을 이유로 각각 거부한 사안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 등에 대해 심사기간 지정을 요청했고, 기획재정부위원회에는 서비스발전기법안 등에 대해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을 요구했으나 정 의장과 정 기재위원장은 각각 국회선진화법 규정을 이유로 지정을 거

부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법안에 대해 심사기간을 지정하기 위해서 국가 비상 사태가 아니면 여야(교섭단체 대표 의원간) 합의를 해야 한다.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에 대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와 재적 인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

이에 새누리당은 심사기간 지정에 여야간 무조건적인 합의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의회주의 원리에 반하고,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에 재적 5분의 3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TF는 “결론적으로 국회선진화법 조항은 헌법에 반해 위헌 무효”라며 “국회의장과 기재위원장이 지정을 거부한 것은 헌법상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은 여야가 합의를 통해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두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회 스스로 만든 법이 잘못됐다면 입법권을 가진 국회 안에서 논의해 고치려고 해야지 헌법재판소에 ‘내가 만든 법이 잘못된 게 아닌지 검토해 달라’고 부탁하는 모양새가 과연 올바른 것인지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政·靑 정책조정협의회 신설



정책조정 기능 강화

정부와 청와대가 정책 협의·조율·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부총리와 관계 장관, 청와대 수석 등이 참여하는 ‘정책조정협의회’를 신설한다.

정부와 청와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책 조정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최근 연말정산과 건강보험료 논란 등으로 부처간 정책 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거센 비판에 따라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정책조정협의회에는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국무조정실장, 담당 장관 등 정부측 관계자와 정책조정수석, 홍보수석, 경제수석, 담당 수석 등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가 참여한다.

정부와 청와대는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열어 정책의 수립, 집행, 변경, 발표 등에 대해 조율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각 차원의 정책 조

율·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격주로 열기로 했다.

‘총리-부총리 협의회’는 국정 전반과 경제·사회이슈를 총괄 조정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 분야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월 1회 열고 있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격주로 개최하기로 했다.

청와대 차원의 정책 점검·조정 기능도 강화한다. 청와대는 정책조정수석이 주재하고 정책 담당 수석 6명과 정부수석, 홍보수석이 참여하는 ‘정책점검회의’를 신설하기로 했다. 당정청간 소통과 협력 체계도 보완한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국정 3년차를 맞은 정부는 물론 당도 올해가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당정청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 강화는 필수적”이라며 “향후 당정청간 정책 협의 기능을 그 어느 때보다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추 실장은 “2일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단이 선출되면 협력 체계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승민 “위기돌파 강력한 변화의 리더십 필요”



“지금은 평시 아니라 전시상태”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유승민 후보는 1일 “위기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변화의 리더십이 필요한 만큼 과감한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원내대표 경선을 하루 앞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리닝메이트인 원유철 정책위의장 후보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은 평시가 아니라 전시상태. 평시라면 부드러운 리더십이 가능할 수 있지만 위기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과 정부와 대통령이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고 겪어보지 못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민심이 무섭게 이반되고 있고 대다수 의원들이 이대로는 안된다라는 걱정을 하면서 총선승리를 할 수 없다는 공감을 했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또 “정부와 청와대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닌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 관계를 가져나갈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정부와 청와대를 적극 설득할 수 있는 제대로된 소통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증세문제와 관련 “연말정산 파동으로 세금문제가 예민한 시기에 증세를 당장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난 2년간 증세없는 복지가 가능한 것처럼 얘기해온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세없는 복지라는 허구에 집착할 게 아니라 야당과 이 문제에 대해 일대 대타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고부담 고복지로 가기 힘든 형편이기 때문에 중부담 중복지를 목표로 삼아 증세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해 시간을 갖고 야당과 타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발간과 관련한 여론대 논란에 대해 “두분 다 새누리당이 배출한 대통령”이라며 “전현직 대통령이 이 문제로 갈등이 생기기 싫기를 바라고 원내대표가 되면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갈등과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후보는 개헌 문제에 대해서 “진박은 개헌에 반대하고 비박은 개헌을 당장해야 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권력구조에 맞추고 그것만 뜯어고치는 개헌보다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개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주영 “대통령 밀쳐내는 것 위기극복 아니다”

“위기 돌파는 실체를 똑바로 보고 결기있게 전진하는 것”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이주영 후보는 1일 원내대표 경선을 하루 앞두고 “위기를 돌파하겠다며 대통령을 밀쳐내는 것은 위기 극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리닝메이트인 홍문종 정책위의장 후보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위기라고 하는데 위기가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위기 돌파는 우회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실체를 똑바로 보고 결기있게 전진하는 것”이라며 “당정이 단결하면 총선에서 필승하지만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파열음을 내면 총선에서 필패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번 새누리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거는 친박, 비박이라는 계파간의 대결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땀과 눈물로 탄생시킨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한 파열음을 맞추는 선거”라며 “이주영은 국가적 재난 앞에 진정성과 용기는 자서로 위기를 수습해 왔듯이 이제 위기의 당과 정부를 위해 온몸을 던지려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정청의 원활한 소통과 유기적 화합으로 힘있는 여당, 신뢰받는 정당을 만들 것”이라며 “진정성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고 감동 정책을 펼쳐 압도적 총선 승리를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MB의 비용’ 이달 출간



이명박 정권의 잘못에 대한 논의가 출판

을 통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의혹을 해명한 자서전 ‘이명박 회고록’이 2월 2일 출간 예정인 가운데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지적한 ‘MB의 비용’이 그 다음 날 나온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등 16인의 전문가들이 MB정부가 발생시킨 문제들을 짚으며 그 피해 금액을 주장한 내용을 묶었다. 특히 MB정부가 추진한 자원외교가 국가에 큰 채무를 남겼다고 지적한다. 고기영 한신대 교수는 주요 에너지 공급기 3사에 생긴 새로운 빚만 해도 42조 원에 이른다고 썼다. 박정근 관동대 교수는 MB정부의 대표적 사업인 ‘4대강 사업’에 앞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84조 원이라고 주장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2롯데월드의 기원 역시 이명박 정부에 있다고 했다. “롯데그룹과 특별한 관계에 있던 MB는 일사천리로 허가를 내줬다”는 지적이다.

책을 엮은 지식협동조합 좋은 나라는 “이 책이 결코 MB 개인을 인격적으로 탓하거나, 소위 반MB를 정교하게 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고 했다. “MB의 비용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과제라는 문제의식에 바탕을 둔 기획”이라는 것이다.

새정치, MB 회고록 연일 비판 공세… “자중하라”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민감한 시기에 민감한 내용 회고록 명목으로 공개한 것 무책임한 처사”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대해 연일 날카로운 비판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같은 사안을 놓고서 전직 대통령과 국민이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재임 5년을 돌아볼 때 국민은 잘 한 일은 하나도 기억 못하는데 이 전 대통령은 잘못된 일을 하나도 기억 못하는 것 같다”고 표문을 열었다.

문 위원장은 “전직 대통령이 퇴임 이후 몇 년 지나지 않아 북한이 정상회담의 대가로 100억불을 요구했다는 등의 내용을 민감한 시기에 회고록 명목으로 공개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국민을 보듬고 위로해줘야 하는 전직 대통령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종하고 있는 편이 낫다. 자중하라”고 비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30조 월세가 낭비된 4대강 사업과 41조의 국부가 유출된 해외자원외교에 대한 해명치고는 너무 무책임하다”며 “국민은 어이없어 하고 있다. 열린 입을 다물 수 없는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회고록 때문에) 오히려 4대강 국정조사 필요성이 더욱 절실했다”며 야당을 향해 4대강 국정조사에 적극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해외자

원외교를 둘러싼 각종 비리를 언급하며 “국민의 66%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에 찬성하고 있다. 국회에 출석해 모든 의혹을 국민에게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외자원개발 국조특위 위원장인 노영민 의원은 회고록의 주요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혹세무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해외자원개발은 MB정부 인수 단계에서부터 밀그림이 그려져 청와대가 주도했다는 사실이 공식 문서로 확인됐다. 45건의 양해각서(MOU) 중 총리실이 체결한 것은 4건에 불과하다”며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기 위한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탐사 광물인 경우 성과를 내는데 시간이 필요하지만 MB정부가 투자한 것은 즉시 회수가 가능한 생산 광물”이라며 “우물에서 송눈을 찾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우물에 물이 없었다. 왜 말라버린 우물에 투자했는지 알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수율이 높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마치 미래의 희망을 현재 이뤄진 것처럼 표현한 ‘추정 회수율’을 산정한 수치”라며 “회계학에 없는 개념을 도입해 통계를 조작·왜곡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발목 부상으로 병원 신세를 지다 10여일만에 복귀한 이석현 의원도 “퇴임한지 2년도 안됐는데 국가기밀을 마구 누설하는 것은 송눈 만들자고 밥술을 태우는 격”이라며 “자화자찬 회고록이 아니라 30년 후에 국민에게 용서를 비는 참회록을 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경환·황우여, 연말정산·건보료 혼선에 사과

“여당, 국회, 국민들과 소통 협력에 만전 기해야 할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연말정산과 건보료 개혁 등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혼선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최 부총리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조정 강화 관련 회의에서 “최근 정부가 몇 가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하지 못해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리는 일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 내부는 물론이고 여당, 국회, 국민들과 소통 및 협력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부처간 칸막이를 더욱 허물고 협업을 강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청와대와 정부 사이에도 지금보다는 훨씬 강화된 사전 협의와 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을 포함한 당정청 간에도 사전 협의를 더욱 긴밀하게 하고 국민 의견도 충분히 수렴,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파악해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책의 완성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부총리는 “사회 분야에서도 크고 작은 여러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이 있어서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황 부총리는 “사회부처에 부총리제가 신설됐고 월 1회 회의를 열게 됐지만 앞으로는 현안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현안이 예상될 때에 대비해서 수시로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정청 간에도 긴밀한 일체감을 갖고 정책에 대해 깊이 준비하고 사회 각계의 충고를 모으고 부처간 지혜를 더해 보다 완벽한 정책을 만드는 데 부총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연말정산과 건강보험료 논란 등으로 부처간 정책 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이번 회의를 소집했다.



대구광역시 2015년 2월 2일 월요일 3

살기 좋은 경북 건설! 토지관리 전문가 한자리에

2015년도 토지행정 발전 전략회의

경북도는 지난달 30일 구미시종합비즈니스 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도 및 시·군 관계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경북도 토지행정 발전 전략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면 주요시책에 대한 추진 방안 및 향후 토지행정의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도민이 만족하고 살기 좋은 경북 건설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도로명주소의 전면시행 2년을 맞아 도민 생

활에 정착시키기 위해 도로명주소를 많이 사용하는 택배회사 등 기업체 방문 과 노약자, 어린이와 같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집중적인 홍보와 전 도민의 생활화에 조속히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다.

그리고 주요 국제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를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되어 완료한 경험을 토대로 올해 사업지구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개별지가 등 각종 부동산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원-터치 공간

정보열람시스템'의 도와 전 시·군·구 및 읍·면·동 민원실에 구축하는 사업 마무리와 동시에 해당 시·군 자료만 조회되는 것을 도내 전 시·군의 자료가 조회되도록 하는 고도화 사업도 상반기 내에 구축하기로 했다.

또 포항시 북구에서 운영 중인 '찾아가서 해결하는 지적민원현장 방문제'를 기존의 지적업무에서 보건·이미용·농기계수리 등과 합동으로 운영해 도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우수사례와 시·군 특수시책을 소개해 좋은 행정운영 사례를 배워서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참석자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재춘 도 지역균형건설국장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토지를 관리하는 경북이 민선 6기



의 슬로건인 '사람중심 경북세상'에 맞도록 전국에서 으뜸가는 토지행정을 실현해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치영 기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설명회

경북도는 지난달 30일 경북환경연수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군 담당공무원 및 제공기관 관계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올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주요변경사항과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활성화와 시·군 담당공무원 및 제공기관 관계자의 직무능력 향상하게 위해 열렸으며, 김홍섭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과장의 변경지침 강의를 시작으로 경북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의 2015년 신규 사업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가정 등을 대상으로 지역별·가구별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 사업을 시작으로 신규 개발 사업 11개를 포함해 시·군별 총 90개의 사업이 시행된다.

박의식 도 복지건강국장은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많은 도민들이 맞춤형 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히고, "사회서비스의 전달자인 시·군 담당 공무원과 제공기관 관계자들에게 지역복지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북도는 시·군 담당공무원 및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 사업별 심화 교육 등 컨설팅을 통해 도민의 사회복지 서비스 욕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김치영 기자



현장연구와 수출농업으로 경북 농업 발전 선도 연구개발 신규과제 심의회

경북도농업기술원은 지난달 30일 농업기술원에서 대학교수, 농업인 등 관계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과제 심의회'를 가졌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벼 유색미 생산과 친환경 재배기술 연구, 사과·포도·다래·나무딸기 등 FTA에 대응한 새 소득 원예 작목 개발 및 경쟁력 향상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또 수출단지 병해충 모니터링 등 수출농업 지원 연구와 전통발효식품 연구 등 작물, 원예, 농업환경 분야 36개의 신규과제에 대해 집중 논의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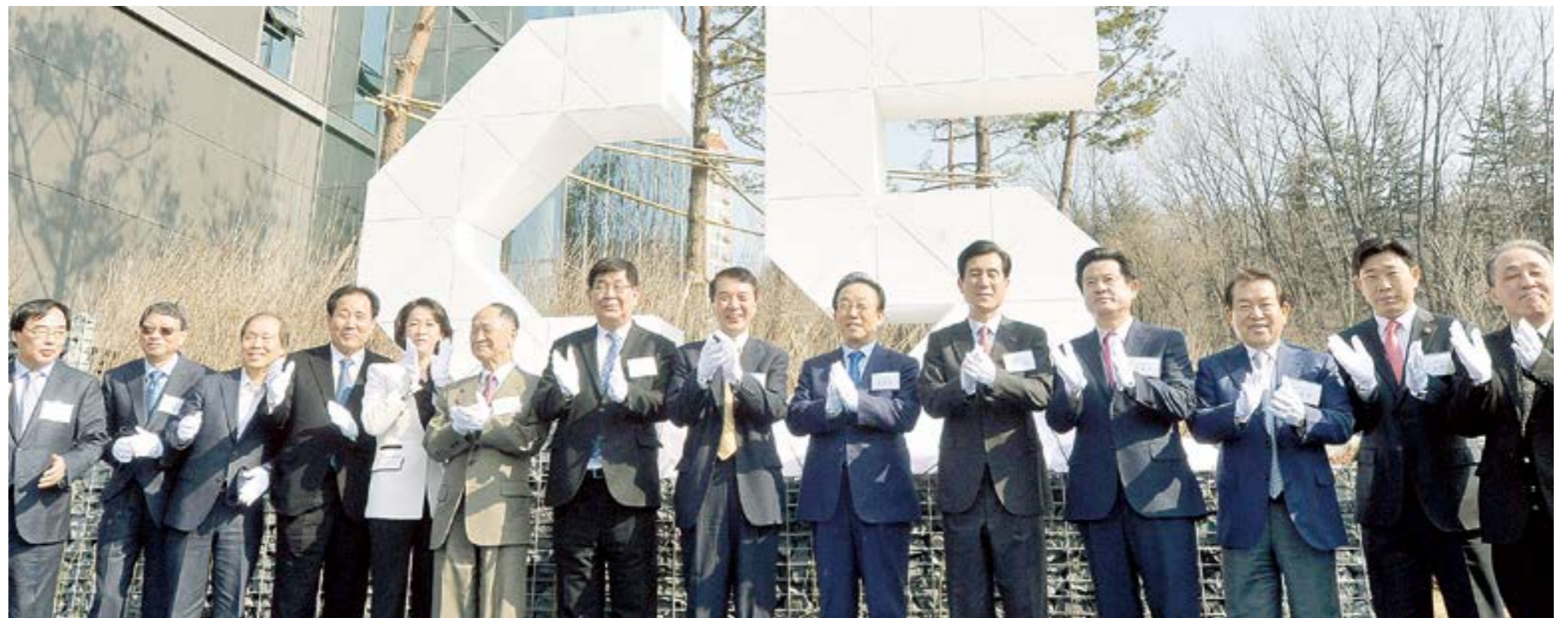
한편 농업기술원은 지난해 포도 '빅데라'를 비롯해 참깨, 복숭아, 딸기 등 12개 작목, 18개의 신품종을 개발했고, 97건의 영농 신기술을 농가에 보급하는 한편 '감나무 환상박피기' 등 14건의 특허기술을 개발하고 '한방 약식재 제조방법' 등 2건의 특허기술을 산업화하는 성과도 올렸다.

김세종 농업기술원 작물육종과장은 "FTA 확대로 국가 간 경쟁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우수한 우리 농산물이 국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농업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수출농업을 지원하는데 연구개발 사업의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치영 기자



스티브잡스 넘어설 인재 경북이 키운다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 융합연구동 준공

경북도는 지난해 12월 17일 대통령을 모시고 전국 최초 1+1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출범시켰다.

그 중 전국 최초 민간자율형 창조경제혁신센터인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가 들어설 '포스텍 C5동(융합연구동)'이 준공됨에 따라 본격적인 창조경제혁신센터 활동과 '한국판 MIT 미디어랩' 구축으로 글로벌 IT 명품인재 양성이 본격화 된다.

준공식에는 김관용 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한 지역기관장과 김용민 포스텍 총장을 비롯한 대학총장과 김진일 포스코 사장 등 지역기업 대표 언론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스텍 C5동(융합연구동)'에서 진행됐다.

포스텍 'C5동(융합연구동)'은 Creative(창의), Collaborative(협력), Cultivatin(육성), Convergence(융합), Center의 다섯 단어의 머릿 글자를 묶어 만든 명칭으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미래의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융·복합 연구 활성화와 대한민

국 미래 IT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건립됐다.

2013년 10월 착공해 완공된 해당 건축물은 총사업비 298억원, 지하1층, 지상7층 규모로 건축됐으며, 포스텍 재원과 전국에서 2개 대학(연세대, 포스텍)만이 선정된 대규모 프로젝트인 IT명품인재양성사업(총사업비 1771억원) 사업비가 포함됐다.

1층-3층은 IT명품사업 추진을 위한 신실학과인 창의IT융합공학과가 강의실, 창의IT설계실습실 등으로 활용하고, 4층은 사업 연구 조직인 미래IT융합연구원이 활용한다.

특히 건물 5층은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로 활용되며 산업체, 대학, 연구소, 지자체 간 유기적 협력체제로 친해진 지역 경제에 활기를 띠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텍 C5동의 주요사업인 'IT 명품인재 양성사업'은 우리나라 IT 분야는 힘든 업종으로 인식되면서 우수인재가 진학을 기피해 왔으며, 세계 정상급 인재로 키워줄 교육환경 미비, 미래에 대한 비전 부재로 우수인재를 육성하는 기반이 부족했다.

애플의 스티브잡스와 같은 창조적인 융합형 인재 없이는 IT 강국을 완성할 수 없음을

실감하고 한국판 MIT 미디어랩을 만들고자 2011년 7월에 포스텍은 국내 최고 대학들과 치열한 경쟁을 뚫고 포스텍이 'IT 명품인재 양성사업 2호'로 선정 됐다.

본 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전담하고, 포스텍과 한국뉴욕주립대학교(SUNY Korea)가 주관하며 경상북도, 포항시, 인천시 등 지자체와 포스코, 삼성전자 등 대기업이 후원하는 명품인재 육성 사업이다.

2011년 7월 선정 이후 운영재원 마련과 인적자원 구축,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프로그램 과제 선정 등 기반구축을 완료하고 2013년부터 우수 학생선발 및 교환, 연구진 확보, 세계 인류 IT융합 교육 및 연구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 확립 등 교육육성단계를 거쳐 오는 포스텍 C5 (융합연구동) 준공으로 IT 명품인재 육성에 속도를 내게 된다.

2015년부터는 성과발생단계로 창의적 i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세계를 선도하는 i-Lab으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교육체계는 학부 3년+석박사 과정 3년(총 6년)의 IT혁신 교육과정을 통해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되며, 2015년 2월 학부생 4명, 석사과정 5명 졸업 예정이다.

중점추진 과제로는 스마트컴퓨팅, 스마트디바이스&시스템, IT기반 미래 헬스케어 등 세계를 선도 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연구과제에 집중하게 된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이날 축사에서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와 더불어 2011년 치열한 경쟁을 뚫고 IT 명품인재 양성사업에 선정돼 C5동이 준공하기 까지 많은 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축하의 말을 전하고, "아이디어가 세계경제를 지배하는 현실 속에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창의인재 육성이 관건이며, 창조경제 성공의결은 창의인재 양성을 확신하고 C5동의 준공에 더욱 더 큰 의미 있으며 사람이 중심인 경북을 만드는 데 앞으로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 했다.

또 "창의적인 융합형 인재 없이는 IT강국을 만들 수 없음을 공감하며 스티브 잡스를 넘어서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데 경북이 앞장서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아이디어과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젊은이들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사업화 되도록 경북도에서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김치영 기자

김관용 지사 "중앙집중의 패러독스에 빠져 있어"

아시아포럼21, 경북지사 기조연설 "수도권 규제완화, 투자활성화를 위한 답 아니다"

"수도권의 인구집중은 이제 어느 정도 정체된 현상을 보이지만, 기능과 시설의 집중은 오히려 심화되는, 또 다른 집중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다. 특히 정치를 비롯한 국가 중추기능과 연구기관과 방송 등 핵심까지 창출기능의 거의 100%가 수도권에 집중된 탓에 전국이 수도권 중심 가치로 획일화되는 무서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중견 언론인 모임 '(사)아시아포럼21'에서 '상생협력형 지역발전과 경북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 김관용 도지사의 발언이다.

그러면서 그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은 헌법 제120조에 명시된 균형발전의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지방에 대한 획기적인 발전대책을 내 놓은 후에 수도권 규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지사는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완화만이 답이 아니다"며 "외국기업은 손익계산서를 따져보는 반면 국내기업은 대차대조표를 보고 투자를 결정하는 경향이 짙은



만큼 수도권 규제완화는 자칫 기업들의 부동산 투기만 조장할 우려가 높다"고 우려했다.

이날 김 지사는 분권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분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이다"며, "신진국 일수록 분권 수준이 높다. 분권이야말로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의 패러독스에 빠져있다. 압축성장 시대에는 중앙집권이 상당한 성과가 있었지만, 역설적으로 선진국 진입에는 중앙집권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김 지사는 "우선,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중앙이 틀어쥐고 있는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돌려줘야한다. 우선적으로 지방에서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주 조직권을 보장하고, 자치입법권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성장 구조로 인해 지방세수 구조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앞선 데 달린 격으로,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 놓고 지방에 재정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는 무상복지로 인해 지방은 지금 파산 직전에는 중앙집권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 사전에 지방과 협의해야 할 것이며, 이를 의무화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관용 도지사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자치발전과 분권에 대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위해 다양한 광역협력의 틀을 가동시키고 있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경북은 '대구경북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세계 물포럼, 도시철도 연장, 남부권 신공항 등의 과제를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영남권 5개 시도와는 남부권 신공항, 수도권 규제완화 공동대응 등을 전개하고 있고, 영호남권과는 조선감염 관광자원화, 국가 백신산업 육성 등 다양한 협력과제들을 발굴해 이를 빠른 속도로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경북은 이러한 상생협력의 범위를 남북교류로까지 확대 발전시켜 지역차원에서 통일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경북은 한반도 최초의 통일국가로 이었던 신라문화의 본산으로, 삼국통일의 역사적 재해석을 통해 국민적 통일공감대 확산과 통일기반 강화에 적극 나서는 한편, 북한과의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새마을운동, 산림녹화, 농업의 현대화 등의 노하우를 전수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날 '(사)아시아포럼21'의 정책토론회에는 변태석 포럼 이사장을 비롯한 지역의 중견 언론인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관용 경북지사의 기조연설과 토론 등의 순서로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김성용 기자

사회

대구광역시

2015년 2월 2일

월요일 4

헤어지자는 말에 사귀던 여성 차들이받은 40대 검거

포항남부경찰서는 1일 헤어지자는 말에 사귀던 여성을 차로 친 A(49)씨에 대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새벽 1시40분께 포항시 남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전 여자친구인 B(31)씨가 다른 남성과 타고 있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차에서 내려 다른 차 뒷편으로 대피한 것을 보고 다시 그 차를 들이받아 B씨 등 2명에게 상처를 입게 했다.

B씨 등은 경상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철호 기자

교통사고로 5명 사상

지난달 31일 밤 8시30분께 대구 달성군 농공읍 5번국도 대구방향도로에서 A(33·여)씨 등 3명이 승용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남성 2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함께 차로 대구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말다툼으로 도로변에 잠시 주차한 뒤 A씨가 지나가던 차에 치였다는 남성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이보다 앞선 오후 5시50분께는 경북 경주시 건천읍 포항경주간 산업도로 영천방향 도로에서 B(44)씨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B씨와 차량동승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2명 모두 중상으로 전해졌다. 또 차량에 불이 나 소방서 추산 80여만원의 피해가 났다.

김영식 기자

‘국가유공자 편리한 시내버스 이용’ 협약

대구지방보훈청은 지난 30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회의실에서 대구시교통연수원과 ‘국가유공자의 편리한 시내버스 이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대구와 경북 경산에서는 상이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임 이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간혹 기사들이 이 제도를 알지 못해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구지방보훈청은 국가유공자 시내버스 무임 이용 제도와 방법, 응대 등에 대한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대구시교통연수원은 기사들에게 이 내용을 교육하기로 했다.

오진영 대구지방보훈청장은 “상이국가유공자들의 시내버스 이용 불편을 없애고 사회적 예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종관 기자

식당에 불나 3200만원 피해

1일 오후 4시15분께 대구 달서구 호림동 한 식당에서 불이 나 280㎡를 태워 소방서 추산 3200만원의 피해를 낸 뒤 15분 만에 진화됐다.

하지만 식당은 영업을 하기 전이라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중이다. 송종관 기자

경주서 타이어판매장 화재 4000만원 피해

1일 오후 2시47분께 경북 경주시 황오동 한 자동차타이어판매장 2층에서 불이 났다.

불은 타이어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4000만원의 피해를 낸 뒤 30분만에 진화됐다. 윤용찬 기자

위급상황 시 119에 도움을 청하세요!!

지난해 화재 4만여건 발생 119 출동 꾸준히 늘어...

지난해 4만2135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119 출동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일 국민안전처가 발표한 분야별 국민안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화재로 인한 피해는 4만2135건으로 2180명이 인명피

해를 입었다. 최근 7년간 연평균에 비해 발생건수는 6.3%(2829건) 감소했고, 인명피해도 3.3%(74명) 줄어들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화재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부주의가 47%, 전기 관련 사고가 24%, 기계관련 사고가 10%, 방화(의심)가 4%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119 이용 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19 구조대가 출동해 구조한 건수는 전국적으로 10만5382건에서 44만7054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고, 119 구급대의 출동건수는 149만3416건에서 238만9211건으로 늘었다.

송종관 기자

관광객 받을 준비 안된 중구

상업화된 관광지, 부족한 개방화장실... 개선시급

#지난달 24일 오후 2시께 친구를 만나고자 서울에서 대구를 찾은 강형선(28·서울 서초동)씨는 중구 성내2동 ‘근대로의 여행’ 코스를 돌던 중 큰 낭패를 겪을 뻔했다. 점심을 먹은 게 잘못됐는지 배가 심하게 아팠으나 건물마다 잠겨있는 화장실에 한동안 곤욕을 치렀기 때문이다. 인근에 있는 백화점을 물어 물어 겨우 용변을 해결한 강씨는 ‘대구’란 지역명만 들어도 고개를 내두른다.

#지난달 30일 오후 7시 20분께 ‘김광석길’을 보고자 마산에서 대구를 찾은 이명주(여·22·봉암동)씨는 방천시장 내 한 음식점에 기분이 크게 상했다. 서민의 일상을 음악으로 표현했기에 김광석을 좋아했던 이씨지만 방천시장 내 음식점들 대부분은 高價의 음식들로 나열돼 있어 원치 않는 저녁식사를 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씨는 김광석이 가지고 있던 뜻을 오히려 대구가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광도시로써 이미지를 다지려는 대구가 관광객들로부터 쓴 소리를 듣고 있다. 팔공산 일대를 제외한 상당수의 관광코스가 ‘길’로 구성돼 있는 반면, 화장실 등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서민들의 애환을 노래한 ‘김광석’의 흔적을 담은 ‘김광석길’도 각종 프랜차이즈로 과거의 흔적을 찾기 힘들다. 지난달 31일 오전 11시께 경상감영공원

인근의 ‘제1코스 경상감영달성길’은 코스를 걷는 내내 한약 등을 판매하는 상가들만 보일 뿐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은 단 1곳도 보이지 않았다. 특히 관광객의 용변해결을 위해 당연히 있어야 할 화장실은 어디에서도 찾기 힘들었다. 곳곳에 위치한 지하철역과 도서관 등을 제외하곤 길에다 용변을 해결할 장소도 없다.

동성로 등 시내도 상황은 마찬가지. ‘개방화장실’이란 안내표지가 전혀 부착돼 있지 않아 중앙로역과 반월당역을 제외하고는 화장실 찾기가 힘들다. 프랜차이즈의 일부 화장실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안내표지가 전혀 없어 관광 온 외국인이나 나이가 있는 어르신의 경우 놓칠 우려가 있었다.

그나마 이곳은 상황이 나은 편이다. 중구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 일대는 지하철역과 공공시설을 제외하곤 ‘개방화장실’을 찾기가 하늘에 별따기처럼 어렵다. 건물마다 화장실이 마련돼 있지 않다면 모두가 잠겨있어 식당 등을 이용할 때 빠지고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해마다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김광석길’

도 ‘바가지’를 씌우는 식당들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육의 가격표시제가 의무화돼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많은 관광객들이 ‘올며 겨자 먹기’로 식당을 이용하고 있다.

이날 오후 8시께 ‘김광석길’ 옆 방천시장은 옛 정서가 담긴 ‘네온사인’들로 분주했다.

파전과 고기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많은 식당들이 관광객들의 눈길을 유혹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식당 중 외부에 음식가격을 표시한 곳은 드물었다.

실제로 삼겹살을 먹고자 D식당에 들어갔으나 밑반찬 등의 진열이 끝난 뒤 내민 것은 1인분에 2만원에 가까운 ‘한우’로만 구성된 메뉴판이었다.

그것도 손님은 안중에 두지 않은 채 3인분 이상만 주문을 받아 올며 겨자 먹기로 주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D업소 사장은 “우리는 가격이 맘에 안 들어 손님이 나가겠다고 해도 불잡지 않는다”며 “요즘 시대에 이 정도 가격은 공짜나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식당을 이용한 한 손님의 경우는 말이 달랐다. 포항에서 왔다는 손님 L(42)씨는 “아내가 김광석을 좋아해 시간을 내서 이곳에 왔지만 막상 저녁을 먹자니 어느 곳도 마땅치 않았다”며 “더욱이 이곳은 세팅을 다 해 놓고 메뉴판을 준데다 3인분 이상만 주문을 받는다고 해 ‘바가지’를 받은 느낌”이라고 불평했다. 지우현 기자



농협대구검사국, 조합장 선거 대비 내부특별점검

농협중앙회 대구검사국(국장 이한욱)은 3월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관내 20개 농협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한다고 1일 밝혔다.

13일까지 진행되는 특별점검은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에 개입할 수 없도록 사전에 금융감독원 등의 지도감독 사항 점검 등 강력한 내부통제 점검을 할 예정이다.

특히 조합원 개인정보 불법유통, 선심성 예금리 제공, 결산분석 등을 통한 과도한 배당이나 임직원이 조합장 임후보 예정자를 대신한 공적치하, 지지호소 등을 점검하게 된다. 이한욱 국장은 “선거관련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공정한 선거, 농업인과 조합원들을 위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종관 기자

70대 여성 수영장에서 의식 잃어 병원행

1일 오후 4시15분께 대구 달서구 한 수련관 수영장에서 아쿠아로빅 수중운동을 하던 A(70) 할머니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

A할머니는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119로 병원으로 긴급이송돼 현재는 호흡과 의식이 돌아온 상태로 알려졌다.

수련관 관계자는 “할머니가 휴일을 맞아 강사 없이 혼자서 운동을 했지만 마침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빨리 발견했고 관계자가 인공호흡까지 하며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송종관 기자

근로자 임금 상승 체불 사업주... 올해 첫 구속

대구고용노동청포항지청 13명 임금 3300여만원 체불 근로기준법 위반혐의 구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승적으로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올해 들어 전국 처음이다.

대구고용노동청포항지청(지청장 김사익)은 포항 북구 양덕동 주상복합공사 신축공사 현장 근로자 13명의 임금 3300여만원을 체불한 건설업자 전모(63)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전씨는 대구·울산·경남 등지를 돌며 건설공사를 시공하며 2010년 7월경부터 최근까지 근로자 63명의 임금 1억3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포항지청에 따르면 전씨는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총 47차례나 근로자들로부터 진정·고소를 당하면서도,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노동청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전씨는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와 예금계좌, 차량을 이용하고 거처를 수시로 옮기는

등으로 추적을 피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포항지청은 설 전 2주간(2월317일)을 ‘체불임금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임금 예방과 조기청산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김사익 지청장은 “고의나 상승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할 뿐 아니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업주들의 신뢰까지 떨어뜨린다”며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구속 수사 등으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두원 기자

경주서 밤사이 도시가스 누출...배관 교체



경주 동천동에서 밤사이 도시가스가 누출돼 관계기관이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배관을 교체했다.

1일 경주시와 경주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43분께 경주시 동천동 주택가에서 행인이 도시가스 냄새가 난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주소방서는 가스 냄새를 인지하고 가스누출 탐지기를 이용해 누출을 확인했다.

이어 차량과 시민의 통행을 통제했으며 맨

홀 틈새를 검사한 결과 누출원을 파악하고 서라벌도시가스와 가스안전공사에 협조를 요청했다.

현장에 출동한 도시가스 측은 1일 오전 3시 20분께 굴착을 통해 누출 위치를 확인하고 응급 복구에 들어가 누출을 막았다.

도시가스 누출사고는 직경 200mm의 배관 엘보 부분에 미세한 균열이 생겨 발생했다.

도시가스 측은 안전확보를 위해 1일 오전부터 배관교체 공사를 진행해 이날 오후 4시께 공사를 끝냈다.

경주시의 한 관계자는 “1일 오전 4시 10분께 응급조치가 끝났으며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도시가스 측은 “배관교체 때도 주민들에게 도시가스를 계속 공급하기 위해 공급이 중단되지 않는 공법으로 작업해 주민들의 불편은 없었다”며 “정확한 누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용찬 기자



‘매의 눈’ 안전점검 전문가

지난달 30일 대구도시철도건설본부가 2월 9일 시작되는 도시철도 3호선 모노레일의 영업 시운전을 앞두고 실시한 안전점검에서 초빙된 외부전문가들이 전동차를 살펴보고 있다.

도시철도 3호선 모노레일의 영업 시운전을 앞두고 실시한 안전점검에서 초빙된 외부전문가들이 전동차를 살펴보고 있다.

영남대, IT분야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산업체 수요에 따른 최신기술 전문 인력 위한 교육과정 제공

영남대가 모바일 및 임베디드 분야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기업 ARM과 손잡고 IT분야 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영남대는 지난달 29일 본교 IT관 322호에서 영남대 정현열 공과대학장, 송동주 특성화사업단장, 남승엽 정보통신공학과장, 김영탁 학생역량개발처장을 비롯해 (주)휴인스 오승환 이사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ARM Approved Training Center'(이하 'ARM ATC') 공인교육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영국에 본사를 둔 ARM사는 반도체, 모바일 기기, 디스플레이 등 첨단 디지털 제품의 핵심 기술 설계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스마트폰 제조사의 90% 이상, TV 디스플레이 제조사의 80% 이상이 ARM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ARM ATC는 ARM이 보유한 신기술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전문 교육 기관이다. 이번 센터 개소에 따라 영남대는 급변하는 첨단 디지털 시장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 할 수 있는 모바일 및 임베디드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거점 기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영남대는 ARM사의 국내 공식 파트너사인 ㈜휴인스(대표이사 송태훈)와 공인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산·학 기술 발전과 양질의 IT 인력 양성을 위해 양 기관의 역량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영남대 정보통신공학과가 ARM ATC 공인교육센터의 운영을 총괄하고, 특성화사업단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자동차융합부품장치의인력양성사업단'이 센터의 운영에 참여한다.

㈜휴인스는 ARM ATC 공인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산업체의 요구에 부합하는 ARM의 최신 기술과 인증된 전문인력에 의한 교육과정을 영남대에 제공한다.

ARM ATC 공인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한 남승엽 교수는 "ARM이 보유한 신기술과 실무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전문성을 강화해 취업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영숙 영남대 연구원, 교육부장관상 전국 학교폭력예방 전문가 워크숍

영남대 국어생활상담원 구센터 김영숙 연구원이 '전국 학교폭력예방 전문가 워크숍'에서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김영숙 연구원은 교육부 주최로 지난달 22일과 23일 대구인터뷰호텔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 우수사례 발표 부문에서 '또 다른 시작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사례 발표해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김 연구원은 학교폭력 가해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 심리검사, 교육 및 토론 등 학교폭력예방 전문가로서의 활동 사례를 발표했다.

김 연구원은 사례 발표를 통해 가해학생들이 한 번의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학교폭력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특히, 대부분의 학교폭력에서 언어폭력이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하고 청소년들의 바른 언어생활을 위해 인적 환경이 되는 성인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영숙 연구원, 교육부장관상 전국 학교폭력예방 전문가 워크숍

김 연구원은 사례 발표를 통해 가해학생들이 한 번의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학교폭력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특히, 대부분의 학교폭력에서 언어폭력이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하고 청소년들의 바른 언어생활을 위해 인적 환경이 되는 성인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영남대, 기업 맞춤형 직무 아카데미



4일간 27시간 직무별 집중교육 주요 대기업 현업 전문가 특강

영남대가 기업과 학생들의 수요에 맞추어 재학생들의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지난 1월 30일부터 영남대는 'YU 기업 직무 아카데미'를 개설해 재학생이 원하는 희망 직무별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대학이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별 특성과 필요 역량을 분석해 학생들에게 맞춤형 직무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최근 삼성 등 주요 대기업이 토익과 학점 같은 소위 스펙 위주의 채용에서 직무 적합성 위주 채용으로 채용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영업·마케팅, 인사·교육, 유통·물류, IT·기술경영, 금융, 제조, 건설, 기계·전기·전자 등 8개 직무 분야에서 총 15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한다.

오는 8월 졸업생을 앞두고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한 기계공학부 4학년 권혁두(25)

씨는 "학생의 입장에서 기업의 직무 영역이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제조업 생산기술 분야에 관심이 많은데, 이번 과정을 통해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 분야 정보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 졸업 전에 꼭 취업하고 싶다"고 프로그램 참가 동기를 밝혔다.

이번 교육은 1월 30일부터 2월 7일까지 매주 금, 토요일 총 4일간 8개 직무 영역별 직무 분석, 직무 특성 이해, 직무별 필요 역량, 현장 실무 지식, 직무별 창의적 사고, 프로젝트 수행 등에 대해 총 27시간 동안 집중교육을 실시한다.

김영탁 영남대 학생역량개발처장은 "최근 기업들이 전공과목 성적, 예세이 작성, 심층면접 강화 등을 통해 학생들의 직무 역량을 검증해 즉시 일을 할 수 있는 검증된 인재를 선발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며 "학생들이 학교 수업 중 습득이 어려운 현장 실무 지식과 직무 특성, 직무별 필요 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기업과 연계한 다양한 비교과 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보건대, 강소기업 체험프로그램 운영 전국 1위

연수기관 개척·강소기업 배정 비율 효율적 사전직무연수 등 높은 점수

대구보건대학교가 고용노동부의 2014년도 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 운영기관 최종평가에서 전국 129개 대학 중 1위를 차지했다.

강소기업 체험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가 대학 등에 위탁해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산업체와 기관에서 직장체험을 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대구보건대는 목표 달성률, 예산 집행률, 참여자 만족도, 수료율 등을 평가한 정량평가와 과정 적정성과 고용센터와의 업무 협조관계 등을 평가한 정성평가에서 모두 우수수를 받았다. 특히 연수기관 개척 노력, 강소기업 배정비율, 참여 학생 장학금 지급, 직종별 OJT훈련, 효율적인 사전직무연수교육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상위 10%에 해당하는 우수기관에 2015년 사업 우선권을 부여하고 희망

위탁학생 배정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지역기관 중 가장 많은 4800만원 예산으로 25개 기업에 46명의 학생이 참가한 대구보건대는 올해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근 취업처장은 "강소기업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참가한 학생들은 경력형성에 도움이 되고 산업체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공업대학교, 2015년 교직원 퇴임식

우종길 총무부장-최영길 산학부장 학교발전 기여... 사학에 투신

대구공업대학교는 지난달 30일 본관 세미나실에서 우종길 총무부장과 최영길 산학협력부장에 대한 2015년 교직원 퇴임식을 진행했다.

우종길 총무부장은 1980년 3월 본교에 입사해 졸업 경리부에 근무하면서 학교 재정을 총괄했고, 서무과장, 경리부장 등을 거쳐 34년 10개월의 재직 기간에 학교 발전에 이바지했으며, 구남학원 재직을 포함해 37년 4개월 동안 사학에 투신했다.

또 최영길 산학부장은 1977년 4월에 입

사해 총무부서와 관리과를 거쳐 산학부장으로 퇴임하게 됐고, 본교에서 36년 6개월의 근무기간에 시설과 관리업무에 매진했으며, 박물관 관리 등 대구학원을 위해 노력했다.

퇴임식에서 두 사람은 "오랜 기간 동안 대구공업대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지금까지 도움을 준 동료 직원과 교수님께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대학이 발전해 나아가길 바란다"며 아쉬운 소감을 나타냈고 직원상조회에서 감사패와 기념선물을 전달했다.

이별나 총장은 "대학을 위한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며, 새로운 자기발전을 위해 건강하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성덕대, 제17회 학위수여식 거행

전문학사 538명 배출



대구대, 복지형 산학협력 총결산 LINC사업 3차년 주요 성과보고

대구대학교는 '나눔과 복지의 산학협력'이란 주제로 산학협력 성과보고회를 가졌다. 대구대 산학협력선진대학 육성사업(LINC사업) 3차년도 주요 성과를 총결산하는 행사다.

대학에 따르면 행사는 이강준 대구연구개발특구 본부장의 특강과 대구대 기술이전 및 사업화과제(특주채활운동기기 개발) 및

이식을 거행하고 전문학사 538명을 배출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한혜련 경북도의원, 정기택 영천시의원, 영천상공회의소 한명동 회장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전체 수석상은 사회복지계열 류현희 학생이, 경상북도지사 표창은 안경광학과 홍승범, 작업치료과 정영수 학생이 각각 받았다.

이밖에 영천시장 표창(안경광학과 유덕화), 영천시의회 표창(응급구조과 김민호), (재)수암생명공학연구원 표창(사회복지계열 최경순)이 수여됐다.

계명대 박남환(사진) 교수가 '제27회 세계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쇼트트랙 경기 총감독관 역할을 수행한다.

계명대 박남환(사진) 교수가 '제27회 세계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쇼트트랙 경기 총감독관 역할을 수행한다. 대학에 따르면 이 대학 사회체육학과 박 교수는 지난달 30일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기술분과위원장(TD) 자격으로 스페인으로 출국했다.

스페인에서는 다음달 4-14일 빙상(쇼트트랙, 피겨), 스키(알파인, 스노보드, 프리스타일), 아이스하키, 컬링 등 4종목이 진행된다.

한편 박남환 교수는 2013년 제26회 트랜트노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도 쇼트트랙 총감독관을 역임한 바 있다.

경북교육청,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선택진료비 감면 협약체결 전국 61개 병원으로 확대

경북도교육청은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협약체결 병원을 지역 종합병원을 비롯해 전국 61개 병원으로 확대했다.

경북교육청과 협약체결을 맺은 병원은 난치병 환자에 대해서 본인부담의료비 중 선택진료비를 감면해 주고 있다.

특히 지난 1월에 협약을 체결한 푸른병원원 경북교육청이 체결한 대구·경북지역병원 중 유일할 화상전문병원으로서 화상으로 인한 피부이식 및 재건성형 등으로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도내 화상 학생들에게 치료비 걱

정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사업은 학생·학부모·교직원 및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도내 유·초·중·고등학교 난치병 학생에게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1,117명에게 86억 60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해 총 102명의 학생이 완치 단계에 이르는 등 난치병 치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구종모 체육건강과장은 "난치병 치료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사업에 많은 병원들이 관심을 갖고 동참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 친절한 직장분위기 조성

'1월 친절공무원' 박선미 주무관

경북도교육청 공보관실은 올해부터 친절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월 '친절 공무원'을 선정하기로 하고, 1월 '친절 공무원'으로 박선미 주무관을 선정했다.

박선미 주무관은 지난해부터 공보실에 근무하면서 평소 밝은 미소로 동료는 물론 출입 기자, 민원인들을 내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 친절한 공무원으로 알려져 있다.

또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홍보업무를 수행해 지난 연말에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홍보업무 유공자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공보관실은 언론인과 민원인이 자주 내방

하는 부서 특성으로 직원들의 친절한 모습이 경북교육청 전체 이미지를 결정한다는 인식으로, 친절한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매월 부서장이 직접 전화로 직원들의 전화 응대 방법을 평가하고 민원인에 대한 직접 응대도 평가해 친절 공무원을 선정한다.

친절 공무원에게는 상품권을 제공하며,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 우수 친절 직원을 선정해 선진지 견학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치역 기자

김치역 기자



중화권 관광객 유치 위해 대구·경북 힘 합쳤다

'2016 대구·경북 방문의 해' 앞두고 성공적 추진 협업 시스템 실무 점검 드라마 제작 지원·유학생 활용 홍보

'2016 대구·경북 방문의 해'를 앞두고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대구시와 경북도가 힘을 합쳤다.

대구시 및 경북도는 대구시청 회의실에서 양 시·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이 공동 주재하는 보고회를 갖고 그동안 실무 차원에서 논의된 중국 관광객 유치 문제 및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업 시스템을 점검했다.

양 시·도 국장은 이 자리에서 2016년을 '대구·경북 방문의 해'로 지정하고 대구의 도시 관광자원과 경북의 역사·전통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홍보 마케팅을 강화하는 등 중화권 관광객 유치를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중화권 현지 방송과 인쇄매체를 통한 대구·경북 관광 홍보, 한류 예능프

로그래프와 웹 드라마 제작 지원, SNS 및 유학생 활용 홍보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중화권에 대구·경북을 알리기로 뜻을 모았다.

또 관광박람회나 홍보설명회, 메저 여행사 세일즈 등을 통한 중화권 관광시장 개척, 관광마케팅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양 시·도는 이와 별도로 각 시·도의 특색을 살린 개별사업도 병행해 추진키로 했다.

대구시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대구관광전담 가이드 양성을 비롯해 모노레일과 한류 드라마 촬영지, 대형 축제, 스포츠 이벤트를 연계한 '달구벌 관광 프로젝트'를 추진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도내 중화권 유학생을 활용한 자판 운영을 포함해 대구도 관광객 유치가 가능한 기업 인센티브 관광단 유치 활성화 사업 등을 펼칠 계획이다.

안국중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양 시·도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통한 전략적 홍보·마케팅을 추진하면 대구도 중화권 관광객



유치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두환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우리

지역이 서울이나 제주에 비해 중국관광객 유치가 다소 어려운 여건이지만 대구·경북이 굳건한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면 서울·제주 못지

않은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덕 기자 김치역 기자

상주, 작약산 일대 황태 생산지로 각광

일교차 크고 영하 기온 지속 20억 투입 2차 가공시설 조성

상주지역이 황태 생산지로 각광받고 있다. 속리산관광대황태농업회사법인(대표



오재영 기자

권택형)은 최근 상주시 은척면 장암리 작약산(해발 770m) 중턱에 황태터장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경북 내륙 산간지역인 작약산 일대는 일교차가 크고 영하의 기온이 지속되면서 건조 상태가 좋아 강원도 산간지역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법인 측은 올해초 이곳에 대규모 터장을 설치하고 내년부터 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차 가공시설을 갖춘 계획이다.

그동안 황태는 강원 산간지역에서 대량 생산됐지만 최근들어 생산지가 경북 예천, 문경에 이어 상주지역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상섭 상주시 지역경제과장은 "문경, 예천지역과 연계 내륙지방의 황태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백두대간 청정이미지를 활용한 특색있는 소득사업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구시설관리공단, 예산 균형집행 우수 선정

2014년도 집행률 112.3% 행정자치부 장관상 수상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예산 균형집행 평가에서 2014년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지난달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2회 지방공기업의 날' 행사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대구시설관리공단은 2014년도 예산 균형집행 목표액 449억원 중 504억원을 집행, 집행률 112.3%를 달성, 지역경제 성장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달 29일 개최된 '제12회 지방공기업의 날' 행사에

서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한편 대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예산 균형집행 목표 달성도를 높이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자체 개발,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했고, 부서별 실적을 부서 평가에도 반영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전 직원에게 예산 균형집행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한 결과였다.

대구시설관리공단 이진근 이사장은 "앞으로도 행정의 대표적 비능률 중 하나로 손꼽히는 예산의 연발 집중집행을 사전예방하고, 균형 있는 예산집행으로 지역경제 성장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종관 기자

현대백대점, 미생 테마사진전

현대백화점 대구점은 2월15일까지 9층 문화홀에서 '미생 사진전'을 갖는다.

'미생사진전'은 드라마 '미생' 촬영 후 현대백화점 대구점에서 국내 최초로 진행되는 행사로 다양한 테마로 구성됐다.

'미공개 스틸컷' 공간에서는 드라마에서는 공개 되지 않았던 장면들과 드라마 안에서 볼 수 없었던 배우들의 카메라 밖의 모습들을 볼 수 있다. 또 '드라마 명장면 & 명대사' 공간에서는 많은 이들 가슴을 적시고 전율을 느끼게 만들었던 대표적 명장면과 대사를 다시 만나 볼 수 있다.

'웹툰과 드라마의 비교' 공간에서는 윤태호 작가 원작 만화 '미생'을 드라마와 비교하고 '드라마 사용소품 전시 공간'과 '포도월(wall)'도 준비됐다.

김치역 기자

경북지역 최초 청년자립조합

안동서 '바름협동조합' 창립

경북지역에서 최초로 청년자립 협동조합인 '바름협동조합'이 지난달 31일 창립됐다. 바름협동조합은 지난달 31일 오후 청송군 부동면 청송 민예촌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바름협동조합은 전국적인 청년 실업문제와 지역을 떠나는 청년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다양한 재능을 가진 지역 청년들이 모여 청년자립과 지역문화공동체를 실현하고 시대의 한계를 청년들 스스로 돌파해 보자는 취지로 출범하게 됐다.

바름협동조합엔 영상미디어와 편집디자인, 산업디자인, 1인출판, 온라인 마케팅, 인디밴드 등 1인창조기업과 다양한 전공출신인 청년들이 참여한다.

이날 창립총회에선 '지역의 청년 문제와 문화 다양성'이란 주제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참여자는 바름협동조합 발기인과 경북지역 청년문화기획자, 지역을 사랑하는 청년 등이다.

바름협동조합은 안동 신세동 벽화마을의 '마시타카페' 공동운영에 이어 안동역 인근에 복합문화공간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민오픈에이블에 관심있거나 참가하고 싶은 사람은 전화(010-8967-2232) 또는 메일(qksksk1023@naver.com)로 문의하면 된다.

김용구 기자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공동주택용지 공급

3필지 11만9694㎡ 30일 분양공고 온비드시스템 통해 경쟁입찰 방식

경북도개발공사는 경북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 경북도청이전신도시에 2112세대의 공동주택용지 3필지, 11만9694㎡를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할 공동주택용지는 예전의 제2 행정타운과 상업시설용지와 인접해 분양 전망이 밝은 토지로, B-1-3, B-2-1, B-2-2 블록이다.

3필지 모두 최고 인기를 누리고 있는 전용면적 60~85㎡이하 중소형아파트 부지로 공급면적은 필지별 3만1000㎡~4만6000㎡이며, 가격은 160억~222억원이다.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190~220%를 적용해 총 2112가구를 조성할 수 있다.

경북도개발공사는 이날 공급하는 일반분양 공동주택용지는 도청이전신도시 1단계 사업 지구내에서 이번 물량이 마지막이다.

경북도개발공사는 오는 30일 경북도개발공사 홈페이지와 온비드에 분양공고를 게시하고 세부절차는 온비드시스템을 통해 경쟁입찰방식으로 실시한다.

신청자격은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이며, 입찰신청은 오는 2월24일과 25일 이틀간 진행된다. 계약체결은 3월5일 공사 신도시건설본부에서 진행된다.

석태용 경북도개발공사 신도시건설본부장은 "이번에 공급할 공동주택용지는 예전의 배산임수 지형에 위치해 교통과 교육, 생활편의성이 모두 뛰어나 편리성과 쾌적성을 두루 갖춘 아파트 단지로 조성될 것이다. 지난 1·2차 연이은 공동주택용지 100%분양을 감안할 때 이번 공급물량도 건설업체의 투자열기가 매우 뜨거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개발공사 신도시분양 홈페이지(www.gbdc.co.kr)를 참조하거나 신도시건설본부 보상분양팀(054-840-7554-5)으로 문의하면 된다. 황원식 기자

가스공, 대구에 장난감어린이도서관 개관



어린이·청소년 꿈·희망 지원

한국가스공사는 지난달 29일 동구 신기동 소재 안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장난감어린이도서관 개관식을 가졌다.

이는 지난해 8월 한국가스공사가 대구시,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북대병원장, RasGas와 함께 맺은 '몸튼튼 꿈튼튼 협약'에 의거한 지역나눔활동의 일환으로서, 개관식을 가진 안심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해 대구 장애인종합복지관까지 총 2개소의 장난감어린이도서관이 문을 열었다.

공사는 장난감어린이도서관 공모 및 현장

심사 등을 통해 지난해 10월 대구시 내 장난감어린이도서관사업의 대상기관을 선정했다. 이에 앞서 공사는 지난 해 12월 동구 율하동 소재 달남어린이공원 내에 체육시설을 조성해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고 대구지역의 생활환경이 어려운 285명의 중고생을 선발해 교복비를 지원한 바 있다.

가스공사는 2015년에도 온누리 열효율 개선사업 추진으로 대구지역 내 취약사회복지시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고, 온누리 장학사업을 통해 대구지역 고교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등 미래세대 육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지우현 기자

대구, 설 명절 대비 과대포장 집중 단속

대구시는 설을 맞아 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주류와 화장품류, 변압회류, 완구류, 건강보조식품류 등의 단일 제품과 명절에 집중 출시되는 선물세트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포장횟수 및 포장공간비율 준수 여부, PVC 합성수지 포장재 사용 여부 등이다.

대구시는 포장공간, 포장횟수에 관한 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육안으로 간이측정한

뒤 기준 위반시 제조자, 수입업자 등에게 진문기관이 검사후 발급하는 검사성적서를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장기준 검사결과 기준을 초과한 제조자에게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지난해 설날 및 추석에는 집중단속을 통해 총 324건의 검사명령을 실시하고 이중 11건의 위반사례에 대해 과태료 부과했다.

송종관 기자

나라장터, 조달기업 '입찰자 PC' 보안 강화

조달청, 16일 시설공사 공고분부터 '안전 입찰서비스' 단계적 본격가동

조달청은 나라장터 전자입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찰에 참가하는 조달기업 입찰자 PC의 보안을 대폭 강화한 '안전 입찰서비스'를 오는 16일 시설공사 공고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본격 가동한다.

안전 입찰서비스는 조달기업 입찰자에게 나라장터에 가상PC를 제공, 가상PC를 통해

PC해킹을 원천 차단해 안전하게 입찰서를 제출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10월에 구축한 안전 입찰서비스는 그 동안 약 3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통해 조달기업의 서비스 전환에 따른 이용환경을 사전에 점검하고, 안정화를 거쳐 서비스 준비를 마쳤다.

조달청의 이번 안전 입찰서비스 운영으로 나라장터 서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조달기업 PC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입찰정보를 유출하거나 변조·조작하는 부정행

위를 원천 차단하게 된다.

안전 입찰서비스 시기에 맞춰 조달기업 입찰자는 사전에 입찰자PC에 안전 입찰서비스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정상적인 가동여부를 반드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달청은 이용환경 변화에 따른 조달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 대상 입찰을 단계별로 확대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조달청 김정은 전자조달국장은 "이번 조달기업의 이용자 PC 보안 조치가 보다 안전한 전자입찰의 기반을 강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조달기업 입찰자는 서둘러 안전 입찰서비스 이용환경을 점검해 입찰서 제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구

대구광역시

2015년 2월 21일

월요일 7

중구 남구
동구 수성
북구 서구
달서 달성



강대식 동구청장은 2일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학대간부회의'에 참석한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2일 오후 구민홀에서 열리는 2월 직원 정례회에 참석한다.

중구, 식을 줄 모르는 성금 열기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중구지회 등 3곳 100만원씩 기탁

중구청은 지난달 대구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중구지회 등 업체 3곳에서 100만원씩 기탁했다고 1일 밝혔다.

중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대구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중구지회(지회장 김형호)에서 이웃돕기 성금으로 100만원을 기탁했다. 또 오스카제이 헤어&뷰티(대표 정성빈)는 22일 10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지난 2011년부터 해마다 100만원씩 성금을 기탁해오고 있는 미도봉사회(회장 정인숙)도 지난달 29일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윤순영 중구청장은 "중구청에 지정 기탁된 성금은 저소득주민 결연지원, 초등학생 학습지 지원, 간병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사랑의 한가족 연결사업'에 쓰여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종관 기자



대구사회복지교육센터 연탄배달에 팔 걷었다

남구 남산동 일대 독거노인 연탄 450장 전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구사회복지교육센터 사회복지연구원 봉사동아리 '행복한 동행'과 직원 등 15명은 지난달 31일 오전 중구 남산동 일대 독거어르신 가정 3곳에 연탄 450장과 굴 한 상자씩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연탄은 사회복지연구원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 20여만원으로 준비됐다.

또 회원 등은 봉사활동 중에도 간간이 어르신들과 다정하게 담소를 나누며 말벗이 되기도 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안창주 사회복지연구원(21·수성구청)은 "사회복지무원이 되면서 비로소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게 됐다"며 "힘들게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야 하는 이유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송종관 기자

달성복지재단,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세요

달성복지재단은 지난달 27일부터 28일 이틀간 재단 산하 기관장 및 부장 등 간부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다사, 화원지역에서 출근길 군민에게 나눔 가두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가두캠페인은 군민에게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고취시키고자 진행됐으며, 모금활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전개해 나가

기 위해 팜플렛 등을 나눠주며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김일규 이사장은 "작은 사랑이 모여 큰 희망이 된다"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어려운 이웃에게 쉽게 나눔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식기자



대구, 버스 준공영제개혁 속도낸다

분과별 위원회 열어 준공영제 개선방안 토론

대구시 '준공영제 개혁시민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운영 실태를 보고받고 수입금 증대, 원가절감 등 혁신 방안 도출을 위한 본격적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준공영제 개혁시민위원회'는 배기철 준공영제 혁신추진단장이 그간 준공영제 운영 실태에 대해 보고를 한 뒤, 분과위원회별로 준공영제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을 했다.

분과위원회는 표준운송원가의 적정성, 경영

합리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분과(위원장 안경준)와 노선개편 및 후속조치 등을 위한 노선통합조정분과(위원장 정영애)로 구성돼 있는데 분과별 검토 개선안은 향후, 개혁시민위원회에서 다시 토론을 거친 후 최종 합의안을 도출한다.

준공영제 운영현황을 보면 '06년 2월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된 이후 1일 버스이용객은 '05년 64만 명에서 '14년 79만 명으로 23.4%가 증가했고, 시민만족도가 '04년 56.4%에서 '14년 80.2%로 상승했으며, '05년 26개 업체의 자본잠식 상태에서 '14년 17개사가 자본이 증가해 버스업체 재정건전성이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무료 환승과 대중교통 이용률은 저조한 반면, 재정지원의 기초가 되는 표준운송원가가 매년 크게 상승해, 재정지원금이 '06년 413억 원에서 '15년엔 1085억 원으로 증가 전망되는 등 향후 시 재정을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견돼 대책이 요구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버스 준공영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시민들의 우려 목소리가 큰 만큼 조속히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며 "노사·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였기 때문에 논의를 거쳐 모두가 공감하는 합의안이 도출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송종관 기자



남구청, 평생학습도시 만든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위한 결의문 채택·모델 구축

남구청은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오전 10시에 남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22회

임시회를 열고 '평생학습도시 조성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임시회는 남구의회 의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으며 결의문을 통해 평생학습도시 조성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남구청은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위해

남구만의 특색있는 평생학습도시 모형과 남구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반영코자 △법·제도 행정영역에 있어 남구의 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평생학습 전략 △남구의 지역 특성과 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두 차례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다.

임명현 남구청장은 "이번 구의회 결의를 통해 남구 평생학습도시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남구만의 특성에 부합되는 평생학습도시모형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우현 기자

권영진 대구시장, 대구 관광현장 듣는다

문화관광해설사와 소통 간담회

대구시는 '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 성공 개최를 위해 2일 오전 11시 30분 관광정보센터에서 문화관광해설사와 소통 간담회를 연다.

대구시는 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문화관광해설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격려하기 위해 2일 관광정보센터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소통 간담회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문화관광해설사, 관광협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세계물포럼 홍보영상을 시청한 후, 권영진 시장이 관광 최일선에서 대구관광 바로 알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들로부터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듣고

격려한 후 오찬을 함께 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들에게 "세계물포럼이 대구를 세계에 알리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관광객을 친절하게 맞이하고 '대구관광 천만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대구 바로 알리기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관광현장을 점검하면서 대구관광 발전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대구를 홍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개선, 타 시·도 선진지 견학, 표창 등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현장에 문화관광해설사를 현장 배치하여 찾아가는 문화관광해설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종관 기자

동구청, 저소득층 아이들 교육 나섰다



청소년 학습관 개관, 학습지도 주력

동구청은 지난달 19일 구민들의 사교육비 절감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청소년 학습관을 열어 저소득층 아이들의 방과 후 학습지도

내 중학교 1학년, 2학년을 대상으로 오는 15일까지 진행한다.

동구청 관계자는 "청소년 학습관은 강대식 동구청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방과 후 학습 공간이다"며 "동구 관내 중·하위권 학생의 학력격차를 감소시키고 소득별, 지역별 교육격차로 인한 교육 불평등의 해소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우현 기자

달성군-(사)대구관광진흥회, 외래관광객 유치 MOU체결



달성군과 (사)대구관광진흥회는 지난달 29일 군청 8층 상황실에서 외래 관광객 유치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의 공동개발·공동개최 등과 관련한 협력을 약속했으며,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2014년 달성군과 한방휴사업단, (사)대구관광진흥회는 요우커(중국 관광객)를 유치하기 위해 대구시 자매도시인 닝보시를 대상으로 17차례 전세기를 운항했으며, 그 결과 중국

관광객 3500여 명이 달성군과 수성구, 청도군에 방문했다. 또 달성군은 중국 일주시 국제해양성과 문화·경제·관광교류협약을 맺어 양측도시에서 개최하는 축제 및 주요행사 교류, 홍보단 파견을 약속하기도 했다. 중국과의 문화·관광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대구관광진흥회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이번 업무제휴협약이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사업을 통해 관광달성의 브랜드를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김영식기자

달성군, 농업인 실용 농촌자원반 교육 실시

여성 리더십 함양 의사소통 전략

달성군은 지난달 30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여성농업인 300명을 대상으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농촌자원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15년 농업정책 추진과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촌의 다원적 기능개발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실시했으며, 김민지 스피치교육원장을 초빙해 '여성의 리더십 함양을 위한 의사소통 전략'이란 주제로 특강도 실시했다.



교육내용은 달성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새기술 보급, 영농현장의 문제점 해결 등 농업인에게 직접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김영식기자

경북

대구광역시보

2015년 2월 2일

월요일 8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광고·구독안내
(053)257-0000



이강덕 포항시장은 2일 '지역 금융기관 대표자 간담회'를 주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오는 2일 제51회 춘계 한국중동(U-15)축구연맹전 왕중왕전 결승경기에 참석한다.



임광원 울진군수는 2일 소회의실에서 읍,면장 및 실과소장회의를 주관한다.

강구일번지 공인중개사 물접수환영
영덕군, 강구면, 영해면 등
동해안 모든 지역 **땅** 문의하세요
최선을 다해 선별해 찾아 드리겠습니다.
TEL 054)734-8989 / 010-6767-9997
대표 황성학

'내 몸 살리는 먹거리 상식' 울진뽕, 교양아카데미 실시

울진경찰서 지난달 28일 경찰서 3층 금강송마루에서 건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ולה 첫 교양강좌를 실시했다.

경찰관 개인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것이며, 나아가 국민의 안녕을 지키는 것이라는 슬로건 아래 '내 몸을 살리는 먹거리 상식'이라는 제목으로 교양교양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교양아카데미에는 '건강한 식탁'이미숙 대표를 초대, 강연이 이뤄졌다.

경찰서직원들은 고지혈증, 당뇨 등 건강관리를 위한 식이요법에 큰 관심을 보였다.

울진경찰서장은 "이러한 유익한 강좌는 울진서 뿐만 아니라 울진지역 전 군민에게 필요한 생활상식이라"며 앞으로 더 넓혀나갈 것이라 밝혔다. 김형삼 기자



대계 경매 활발 "울진대계 맛보이소~!"

최근 울진은 제철을 맞은 대계를 찾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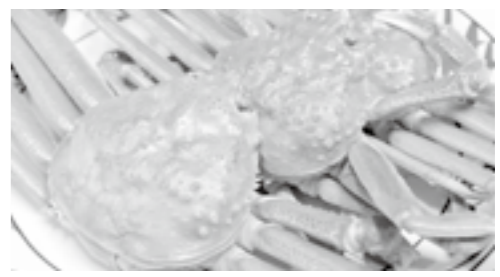
지난달 28일 새벽 6시 울진군 주변 수산물 위판장에는 쌀쌀한 날씨에도 어민, 운반차량

등이 대계경매에 참가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위판장에 놓인 대계와 문어, 도치, 가자미 등 싱싱한 수산물과 구수한 사투리가 넘치는

경매 현장은 오직 죽변항에 있는 수산물위판장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매력들이다.

특히 대계는 겨울이 제철인데 기온이 뚝 떨어지는 1월에는 동해 맑은 물 속 대계들의 살이 부쩍 오른다. 계가 올라오는 시기는 12월이지만 본격적으로 껍질 속에 살이 차는 시기는 1월이다. 김형삼 기자



꼼꼼 맞춤 복지로 '희망 영덕' 건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취약계층 지원 사업 확대

영덕군은 2015년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꼼꼼한 맞춤형 복지로 모두가 행복한 희망영덕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먼저 영덕군의 특성에 맞는 복지 실천 방향 제시와 함께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영덕군민에게 가장 필요한 새로운 복지정책과 계획으로 구성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년)을 수립하고 저소득가구,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협력을 통한 복지소외계층 상시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례관리 강화, 맞춤형 통합서비스제공, 민간연계 강화로 중복 수급을 방지하여 효율

적·효과적인 복지자원 배분과 지역사회 일선 전달체계 강화로 주민복지 체감도를 한층 높여 나간다.

또한 영덕은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31%를 차지하는 만큼 날로 심화되는 고령화 시대에 부응, 독거노인 등 안전을 위해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 구축대상자를 확대하고 본격 운영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 맞춤형 지원, 노인일자리 확충, 기초연금 확대 등 각종사업을 통하여 어르신들이 노후를 보다 유익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손자·손녀 세대 어린이들과 균형 직원 및 관계자들이 관내 경로당과 요양시설을 방문, 말벗이 돼드리거나 건강 검진, 소공연 등의 행사를 펼치는 '할매·할배의 날'을 추진하고 세대 간의 소통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가족 간의 관계를 보다 긍정적이고 역동적인 방향으로 유도한

다는 계획이다.

관내 219가구 255명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즐거운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공감과 소통을 위해 다문화 가족부와 시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복지·자활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보호 작업장 2개소'운영과 함께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을 개원,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인간다운 최저생활에 위협을 받는 장애인들에게 재활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자원봉사 실천 확대와 자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훈훈한 지역 사회분위기 조성하고 함께 희망 가득한 복지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승건 기자



포항, 변화 주도 공직문화 정착

자체 워크숍 통해 솔선수범

포항시 자치행정국은 지난달 30일, 소속 9개과 160여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갖고 올해를 '창조도시 포항' 건설의 원년으로 삼아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솔선수범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워크숍은 여러 사업부서들이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자치행정국 소속의 여러 부서들이 중심이 돼서 부서간의 협력과 융합을 기반으로 시정진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다양한 제언과 아이디어들을 발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토론행식으로 이뤄졌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날 특강을 통해 "최근 국내·외의 경제상황은 천정에 막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전제하고 "우리가 막힌 천정을 뚫고 나가 침체

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창조도시'건설은 당연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이강덕 시장은 또 "지난달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근대화를 주도했던 포항이 앞장서서 변화의 흐름을 주도해서 치고나가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장담하기 어렵다"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적극적인 공무원들의 자세 변화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한층 더 나은 도약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워크숍에서 부서별로 발표한 선진행정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 발표에서는 '창조행정 실현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방안'을 발표한 자치행정국의 이규환 씨가 최우수상을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인센티브제도'에 대해 발표한 예산법무과의 김종일 씨가 우수상을 '창조행정을 위한 협력홍보방안'을 발표한 홍보담당관실의 서병일 씨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박두원 기자

포항, 서민물가안정 민·관 종합대책회의 열어

경제정책 최우선 과제 '물가안정' 전 방위 대응

포항시가 지난달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15년 상반기·설명절 서민물가안정 민·관 합동 종합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유류가 하향안정 기조 속에서 완만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심리로 물가상승의 압력요인이 내재해 있고, 특히 설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중심인 물가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재홍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포항교육지원청과 농·축·수협, 소비자단체, 상인회, 음식업 및 개인서비스요금 관련단체 등 16개 기관·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소비자 물가안정(1.3% 수준)에 두고, 기관·단체별로 물가안정대책을 중점 추진하기로 논의했다.

포항시는 물가안정 종합대책으로 서민밀집 품목(55종)에 대해 월 3회 이상 모니터링하는 등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상시운영 하고, 공

공요금 안정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요인 자체흡수 노력을 통한 공공요금 동결, 불가피하게 인상할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상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각 직능단체·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해 착한가격 이용하기 운동 추진, 직능단체와의 정례 간담회를 통한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자제를 유도하며, 대규모 집포와 전통시장 중심으로 주요품목 가격조사 및 가격공개를 병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요금 인상 등 이상 징후 시 유관기관 합동 지도점검반 투입과 위생감사, 세무조사 의뢰로 물가 인상억제에 적극 개입하기로 했으며 경기회복 기조에 물가불안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지 않도록 사업주의 자율적인 가격안정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농·축·수협에서는 설명절 제수용품의 집중출하 유도를 통한 가격안정 노력과 직거래장터 활성화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기로 했으며, 포항YWCA에서는 지역별·품목별 물가조사를 통한 가격 자율인하 운동과 물가안정 캠페인을 펼쳐 물가안정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박두원 기자



Korea Sparkling

2014 울릉도·독도와 함께하는 안전하고 편안한 겨울여행

동쪽 제일의 환상적인 풍경...
내안에 낭만과 젊음을 일깨우는 출렁이는 파도와 함께~
산과 함께~ 겨울여행을 떠나요

세계속의 울릉, 명품
녹색관광섬 조성!

울릉군
www.ulleungdo.go.kr

경북

대구광역시

2015년 2월 2일

월요일 9

경산 영천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최영조 경상도지사장은 2일 오후 용성면에 '2015 연두방문'에 나서 주요 현안보고 청취와 민생 현장을 방문한다.



김형곤 성주군수는 2일 오전, 군청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2015년 의회군정 주요업무보고'에 참석할 예정이다.

경북대 향토생활관 입사생 선발
경산시, 남자 8명, 여자 12명

경산시는 2015학년도 경북대학교 향토생활관 입사생 남자 8명, 여자 12명 등 20명을 선발했다.

이번 향토생활관 입사생 선발은 저소득 자녀와 우수학생을 위하여 신입생 및 재학생의 생활경도와 성적을 합산해 결정했으며 오는 27일에 입사하게 된다.

경산시는 지역출신 우수학생들의 학습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들의 애환심고취와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해 2012년 경북대학교에 향토생활관 건립비를 출연, 2012년부터 매년 20여명의 향토생활관생을 선발해 왔다.

앞으로도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 향토생활관 기금 출연하는 등 지역출신 학생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신영운 기자

성주,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포상
속도감 있는 민원행정 구현

성주군은 2월 직원경례대회 시 신속한 민원처리로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실천한 '2014년 하반기 민원처리 마일리지 최우수 공무원'에 민원봉사과 석병윤을 비롯한 6명의 우수공무원을 선정, 포상하고 격려했다.

성주군이 2014년 하반기 처리한 3월 이상 유기한 민원은 총 9467건으로 처리민원 9467건에 대한 단축률을 살펴보면, 전체 법정처리기간 9만2315일을 4만7616일을 단축, 51.6%의 단축률을 보였다. 이는 공무원들의 신속한 민원처리를 유도하고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입된 '마일리지제도'가 큰 효과를 거둬으로써, 민원인의 입장에서 '속도감 있는 민원행정'이 구현되고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김두상 기자

20년 숙원 영천시의회 청사준공 눈앞에

영천시의회는 시민 숙원 의회를 구현하고자 오랜 숙원이었던 청사 준공을 눈앞에 두고 청사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축된 의회는 연면적 2617㎡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총사업비 54억원이 투입됐다. 지하1층 주차장을 비롯, 지상1층에 의정실 및 의회사무국 사무실, 지상2층은 상임위 회의실, 의원 집무실이 위치하며 지상3층에는 본

회장 등의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영천시의회는 신청사 건립으로 집행부와 의 상호협의를 물론 견제와 협력 등으로 시정 전반에 걸쳐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희망찬 미래를 여는 새로운 의회상을 정립하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시민속의 신뢰받는 선진의회를 구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일만 기자



성주농업 신기술보급 10억원 투자

농촌지원 분야 9건, 연구개발분야 18건, 총 27건 오는 9일까지 신청 받아

성주군은 FTA대응 농업 경쟁력 향상, 새소득작목 육성,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2015년 농촌지도분야 시범사업 신청을 오는 9일까지 신청받을 예정이다.

2015년 시범사업에는 채리, 거울부추, 등 새소득작목 시범사업 고품질참외생산기술 보급을 위한 기능성참외생산유통 시범, 잠의바 이러스 진단실 운영, 수출과제연작자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사업, 농촌자원분야에서는 농촌건강생활존 육성 및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귀농귀촌지원분야로는 귀농창업자금 지원 및 귀농귀촌 현장실습 지원사업,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등이 있다.

각 담당분야별로 접수하고 있으며 농촌지원 분야 9건, 연구개발분야 18건 등 총 27건, 사업비 10여억원이다.

이외 추가로 추경확보 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이번 신청사업에 대해서는 9일까지 접수가 끝나면 사업장 현지방문조사 후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두상 기자



성주, 군민행복 고객 중심 민원행정 펼치겠습니다

내집같은 따뜻한 민원실 만들기

성주군 민원실에서는 "군민행복 고객 중심의 민원행정을 펼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민원담당 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 매일 근무시간 10분 전, CS 친절교육을 실시한다.

민원실은 '성주군의 얼굴'로서 고객 중심의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고객 맞이 인사요령, 전

화응대 방범, 표정관리와 스트레칭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 직원이 고객중심의 마인드를 함양하고 있다.

또한 민원인 전용 PC와 팩스, 복사기, 휴대폰 충전기, 부동산 정보 열람 시스템 등 민원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청각 장애인에 위한 화상 수화 통역 서비스, 노약자를 위한 우선민원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종 관상목

및 꽃 화분과 신간 교양도서 및 음료를 비치, 민원인이 대기시간 등에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며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매일 아침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작은 실천으로 군민만족을 넘어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내 집 같은 따뜻한 민원실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두상 기자



청공회, 고향 청도발전 위해 뭉쳤다

2015 신년교례회 성황리 개최

청도군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모임인 청공회가 '2015년 신년교례회'를 지난해 29일 서울가든호텔 대연회장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승을 청도군수, 예규대 청도군의회 의장, 박보한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이상돈 군인공제회이사장, 문화체육관광부 이형호 문화정책관을 비롯한 120여명이 참석, 올미년 새해 덕담을 나누면서 고향 청도 발전에 힘을 모아 나갈 것을 다짐했다

청도군 홍보대사 텔런트 송재호, 요리연구가 구본길, 대한배구협회 전무이사 이종경씨가 참석, 적극적인 청도군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청도군에서는 아름다운 청도의 풍경을 담은 사진 30여점을 전시하고 하늘에서 본 청도의 사계 영상물 상영, 관광청도 홍보지를 배부, 고향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승을 청도군수는 군민의 삶이 윤택해지고 '청도의 아름다운 미래'와 '역동적인 민생청도 건설'을 위해 고향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강용규 기자

칠곡 '할매 할배의 날' 본격 가동
조부모와 손주 세대간 벽 허물어

칠곡군은 조부모와 손주의 만남으로 세대간 벽을 허물기 위해 제정된 '할매 할배의 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군은 지난 31일 노인종합복지관 강당에서 지역 어르신과 학생 등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내 5개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및 노인단체 결연식을 갖고 '할매 할배의 날' 확산을 위한 가족공동체 회복운동에 나선 것이다.

이날 백선기 군수를 비롯해 장세학 의장, 김병찬 경찰서장, 정세원 교육장, 안태현 소장서장 등 각 기관단체장들은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할매 할배의 날' 범국민적 운동 확산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또한 칠곡군노인지회(회장 송권달)와 왜관 초등학교는 결연식을 통해 앞으로 지속적인 만남과 교류로 끈끈한 인연을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할매 할배의 날'은 100세 장수시대에 따른 노인 문제와 핵가족화로 인한 사회·정서적 문제 해결을 위해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자녀와 함께 조부모를 찾아뵙고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심과 삶의 지혜를 배우는 날이다. 안성민 기자

고령소방서, 어르신 방문 교육
대한노인회 100여명 대상 소방안전

고령소방서는 지난달 28일 대한노인회 고령군지회 강당에서 어르신 10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이승우 고령소방서 소방행정차장(무브캠코리아 대표)이 방문해 할매·할배의 날 운영에 대해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교육은 최근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아파트화재 사례 소개와 화재 시 연기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의 무서움을 동영상으로 보여줌으로써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또 화재발생원인과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시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평상시 사용하지 않는 전기코드는 빼놓고, 가스레인지 사용 후에는 중간밸브를 잠그는 등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으로 화재예방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고령소방서 관계자는 "겨울철에는 난방기구의 사용으로 화재발생 우려가 높기 때문에 불조심을 생활화해 안전한 가정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수 기자



경산

기업하기 좋은 첨단산업도시

일자리가 많은 활력 넘치는 경제, 미래의 꿈이 자라는 일등교육 조상의 열이 깃든 찬란한 문화, 행복이 넘치는 건강도시 경산시가 21세기-대한민국 대표도시로 힘차게 도약합니다.

경북

대구광역시

2015년 2월 2일

월요일 10

안동 영주 문경 봉화 예천 영양



권영택 영양군수는 2일 오전 영양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2월 직원조회'에 참석한다.

영주, 국가시책 발맞추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영주시는 상저하고의 경기변동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 등 국가시책에 발맞추기 위해 조기집행 대상액 3489억원의 55%인 1919억원을 상반기 내 집행하기로 했다.

지난달 29일 시청 강당에서 서원 부시장 주재로 조기집행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고 실적향상을 위한 '2015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대책 보고회'를 갖고 본격 추진에 들어갔다.

이번 보고회는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등 34개 부서에서 2015년도에 추진해야 할 조기집행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일정 및 월별 집행계획을 보고하고 부서간 의견을 나누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서원 부시장'은 이날 각 부서별로 추진 일정 및 월별 집행계획을 듣고 서민경제의 체감효과가 큰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 SOC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하며 "건설한 재정 조기집행과 주민불편 해소사업에 역량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전상기 기자

안동시보건소, 통합건강 증진사업 우수기관 선정

안동시보건소는 지난달 29일 경북도청 강당에서 개최된 '2014년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경북 24개 시·군 보건소 참가한 가운데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을 수상했다.

안동시는 지난해 금연과 절주, 영양, 운동, 모자보건, 구강보건 등 13개 영역을 지역사회 실정에 맞춰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포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각 영역별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안동시는 경북에서는 최초로 흡연인구 감소 및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관내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금연활동 평가대회를 개최해 6개 기관·단체에 대해 포상했다.

김용구 기자

예천양수발전소,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한국수력원자력(주) 예천양수발전소는 지난달 29일 예천군 상리면 명봉사 인근 야산에서 겨울철 발전소 주변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가졌다.

먹이주기 행사는 발전소 주변의 야생동물 먹이 부족현상을 해결하고 서식지 보호를 위해 추진하게 됐으며, 예천양수 발전소와 협력 업체인 한전KPS, ㈜화전플랜트의 직원들 그

리고 환경실천연합회 회원들이 동참해 고구마, 사료 등 약 400kg의 먹이를 상부 저수지 주변 야생동물 통로에 공급했다.

또한 눈이 오는 와중에도 등산로 주변의 각종 쓰레기를 수거해 발전소 주변 생태계 정화에 힘썼다.

황원식 기자



영주, 내년 국비 확보 빠른 움직임

'대박나라' 프로젝트 등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영주시는 국비 지원사업 발굴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 중앙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끝남에 따라 업무보고 중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과 신규사업 발굴 및 국비 확보를 위해 지난달 30일 시청 강당에서 '중앙부처 대응전략 및 2016년 국비 확보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장옥현 영주시장이 직접 주재한 가운데 중앙부처에서 보고한 주요정책들을 분석하고 주요사업들에 대한 국비 확보 전략수립 및 이에 따른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자 계획한 자리였다.

주요 사업으로는 신규사업 관련 14개 사업 296억원으로 구성마을노인안전돌레마을조성 25억원, 대박대항연 '대박나라' 프로젝트 20억원, 산촌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 20억원, 상시거점소독세척시설 구축 16억원 등이며, 계속사업으로는 한국문화테마파크조성 105억원, 이산면·문수면급수구역확장 63억원,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59억원, 무섬지리문화경관조성 50억원, 도시재생선도사업 25억원이다.



국가직접 시행사업으로는, 중앙선철도 북선전철화사업 1조1200억 원, 국지도28호선(단석-부석사)건설공사 270억원, 가흥-상방간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 219억원, 국립녹색농업치유단지조성 100억원, 하이테크베어링산업화기반구축 43억원 등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부시장(서원)을 단장으로 올해 조부터 운영해 오던 2016년 신규사업 발굴 T/F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 발굴한 신규 사업은 한국 '천하명당 제1승지' 소백산지구 광역개발사업 추진 등 23건들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2016년 국비 확보 예산사업으로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는 민선 6기 역점 시

책과 연계되는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경북도, 중앙부처, 기획재정부, 국회 등을 방문해 설명하는 등 국비확보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보고회에서 장옥현 영주시장은 중단 없는 지역 개발을 추진하고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정부 공모사업의 적극적인 응모, 특별교부세 등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 지역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자 맡은 바 소관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과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전상기 기자



예천, 장애인 사회참여 돕는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기본교육 실시

예천군은 지난달 30일 예천군여성회관 회의실에서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24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일자리 사업 추진 방향과 복무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업무역량 제고를 위해 2015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기본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이재철 글로벌인재개발연구원장을 초청해 직장인의 예절과 인성교육, 친절한 민원응대 등 직장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남명진 한 국장애인고용공단 부장이 한국장애인고용공

단의 사업 소개와 구직상담을 진행했으며 일자리사업에 대한 질의응답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경식 주민복지과장은 어려움을 딛고 사회경제 활동에 참여해 준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업에 참여해 주길 바라며, 앞으로 직업생활과 사회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 취업 연계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직업생활 기회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일자리창출과 지원을 통해 취업요구를 해소하고 사회참여 기회와 소득을 보장해주는 사업으로 예천군은 앞으로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황원식 기자

고경환 문경시장, 주민과 대화의 시간 가져

새마을지도자문경읍협의회 정기총회 열려

새마을지도자문경읍협의회는 지난달 28일 문경을 주출문화센터 다목적회의실에서 회원 60여명과 박진희 문경읍장, 관내 기관단체 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고경환 문경시장은 2일 오전 농암면사무소에서 열리는 순회간담회에 참석, 지역 주민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안진수 협의회장과 장금태 부녀회장의 임기시작을 알리는 인사로 시작해 2015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했으며 신임지도자 부녀회장의 소개식으로 마

무리했다. 안진수 협의회장은 "새마을 협의회가 하나된 모습과 행동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새마을 분위기를 조성해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으며 장금태 신임부녀회장은 "전원회장이 부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시길 회생의 가치를 받들어 낮은 자세로 회원 화합과 단결을 위해 노력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 주겠다"고 했다.

한편 박진희 문경읍장은 안진수 지도자협의회장, 장금태부녀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올 한해에도 전 회원 모두가 화합해 문경시 선두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문경읍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오재영 기자



1908 yeong yang

새로운 영양

The New Yeongyang

신년맞이

음식덕담

자연친화적 녹색성장,
인문학 중심의 인간친화적 융복합산일도시로
나아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맛의 경험, 새로운 멋의 체험에
이름다운 동행은 ...
정(情)은 느끼고 휴식이 필요하시면
영양군의 선택은 필수입니다. !!

지훈예술제

국립농복원센터

영양풍력발전소

http://www.yyg.go.kr

경북

대구광역시

2015년 2월 2일

월요일 11

구미 김천
상주 의성
군위 청송



남유진 구미시장은 지난 달 31일 오전 11시 금오산 분수광장에서 열린 어린이집 안심보육 환경조성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이정백 상주시장은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정례 조회를 주재, 각계 각종의 시민들과 소통한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2일 오전 농암면사무소에서 열리는 순회간담회에 참석, 지역 주민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공정선거지원단 발대식 구미선관위, 선거 단속 강화

구미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선거지원단(이하 지원단)을 확대 편성하고 지난달 29일 구미역 앞 광장에서 지원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날 발대식은 인근 김천시·상주시·문경시·성주군선관위 소속 전임직원 및 지원단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선관위 최세익 사무국장의 담화문 발표가 있었다.

또 조흥래 지도담당관의 지원단 교육, 지원단 남·녀대표의 행동강령 제창, 농악공연팀의 특별공연, 구미역 앞 광장 부근 일대 가두행진 등 다채로운 행사로 이뤄졌다.

선관위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불법 기부 행위 및 매수행위, 불법 선거운동,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범죄에 대해 단속역량을 총집결, 특별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준법선거 실현을 위해서는 선관위의 예방·단속활동도 중요하지만 후보자와 조합원의 불법선거 추방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기환 기자



상주시축산환경사업소 환경개선 나선다

혐오시설에서 청정 공공
환경기초시설 변화 추진

상주시 축산환경사업소는 최근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음식물퇴비화시설 등 혐오시설이 모인 사업소를 환경개선을 통해 청정 공공 환경기초시설로 거듭나고 있다.

그 동안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던 축산환

경사업소의 이미지개선과 축산농가에 대한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원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 먼저, 직원화합 분위기 조성 및 청사입구 환경문구 게재, 화분 및 민원인 편의 물품을 비치하여 사무실 분위기를 개선하고,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오재영 기자



청송 삼자현터널 공사 주민의견 듣는다

환경영향평가서 23일까지 공람
주민의견서 다음달 3일까지 제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삼자현터널 국도건설공사를 2019년까지 완료키로 하고 지난달 28일 환경영향평가서(초안)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공고를 내고 오는 23일까지 환경영향평가서를 공람했다.

국토관리청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오는 6일 오전 10시 현동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

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삼자현터널 국도건설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설명하고 주민의견은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삼자현터널 국도건설공사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청송군 현동면 도평리-부남면 대전리간 4.7km(편도 2차로)로 2019년까지 건설한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청송군 안전재단건설과와 부남면사무소, 현동면사무소에서 오는 23일까지 공람할 수 있다.

또 평가서 초안 요약문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http://www.eiass.go.kr>), 청송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 및 공람하고 있다.

의견 제출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제출서를 작성해 3월3일까지 군청 안전재단 건설과로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청송군 안전재단건설과(054-870-6335), 현동면사무소(054-870-8401), 부남면사무소(054-870-8300)로 문의하면 된다.

이창재 기자

김영만 군위군수, 연초 국도비 확보 '총력'



한 김 군수는 제2차관 및 지방세제실장, 교부세과장과의 만남에서 교부세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27일에는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를 만나 팔공산시대를 준비하는 군위군의 개발청사진 및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김 지사로부터 2016년도 내 팔공산 터널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냈다.

한편 김영만 군수는 “군 살림살이 뿐 만 아니라 지역장차기 발전을 위해서는 국도비에 산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산은 경쟁의 산물인 만큼 군위군 공무원들이 예산확보에 혈안이 돼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전체 공무원이 국도비예산 확보에 매진해야한다”며 직원들을 독려했다.

김 군수는 민선6기 취임 후 국도비 확보를 위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회를 비롯한 중앙부처와 유관기관을 수시로 방문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는 등 예산 확보를 위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서울-군위포럼 및 군위군향우회 등 활용 가능한 인적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국도비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이유근 기자

중앙부처 이어 도지사 면담 등 전방위적 노력

군위군은 올미년 새해가 밝기가 무렵에 2016국도비예산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파악하고 변화되는 국정 운영방향에 맞는 지역발전 정책 개발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군위군의 전 행

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발된 과제를 실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김영만 군수가 직접 행정자치부차관 및 지방세제실장, 교부세과장 그리고 도지사를 방문하여 현안과제와 예로사항을 비롯한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는 등 최근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일 행정자치부를 방문

구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설명회 개최

운영계획 설명, Tomorrow랩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펀드 설명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 경북도 이인선 경제부지사, 남유진 구미시장, 경북도의회 윤창욱 부의장, 구미 지역 중소기업체 대표, 관련 기관단체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IT의료융합센터

대강당에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 및 운영계획 설명, Tomorrow랩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펀드 설명, 창조경제혁신센터 랩 투어 등으로 진행됐다.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정부 창조경제의 핵심거점으로 지난해 12월 17일 개관했으며 중소기업 생산라인 스마트화, 제조경쟁력 확

보를 위한 원스톱 지원,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융합형 신사업 발굴 등 제조업 혁신을 통해 노후화된 구미공단을 창조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또 경북의 전문문화와 농업자원을 활용한 창조산업화 지원을 통해 경북(구미)가 대한민국 창조산업단지의 발원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북의 우수한 문화유산과 전통문화, 농업, 제조업을 삼성의 경영노하우와 핵심인프라 등 첨단 기술력과 제조역량을 융합하고 2,400억원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펀드 조성 및 운영으로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 육

성,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선정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한다.

또한 기업과 대학 및 연구소의 기술개발 및 인력지원 등 산·학·연 협력을 강화시키고 기관 협업과 지원체계를 확립, 상생협력을 통한 자생적 성장모델을 구축한다.

김진한 센터장은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중소기업에 살리는 인큐베이터이자 구미공단 대도약을 위한 선봉장으로서 진정한 대한민국 창조경제산업단지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기환 기자



오재영 기자

esGumi

자긍심 높은 문화체육도시 도약!!

www.esgumi.com

스포츠

저소득층 건보료 인하... 땀질 처방

비판 여론 의식 허겁지겁 발표
건보 재정중립 악화 우려
부과체계 틀 개편 촉구 비등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를 연기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는 올해 안에 경감하기로 했다.

월급 외에 금융소득이 많은 직장인과 부유한 피부양자의 건보료는 올리고 저소득층의 건보료는 낮추는 방향의 개편 논의를 전면 중단하면서 들끓는 비판여론을 의식해 내놓은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연소득 500만 원 이하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올해 안에 경감하기로 하고 관련 작업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연소득 5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취약계층은 전체 지역가입자 758만 명의 77%인 599만 세대에 달한다.

이들 지역가입자는 소득 파악이 힘들다는 이유로 자동차와 재산에도 보험료를 매기고 성이나 연령, 자동차 유무 등을 토대로 소득을 추정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복지부는 생계형 재산인 전·월세는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거나 보험료 점수를 줄이고, 가구구성원의 성과 연령 등 평가소득과 자동차 유무에 따른 보험료 부과 기준은 줄이거나 폐지할 방침이다.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은 평가소득과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불합리한 부과체계는 그대로 둔 채 내놓은 땀질 정책으로 건보 재정의 중립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 증가는 전혀 없고, 손실분만 발생하기 때문이다. 기획단의 최종안대로 실행되면 적자폭은 최대 2조원에 이른다.

더욱이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4~2018 건강보험 재무관리계획안'에 따르면 건보 재정은 올해 1321억 원의 당기 흑자를 기록하지만 2016년부터 3년간은 1조4797억 원 1조5684억 원, 1조9506억 원의 당기 적자가 예상된다.

노인 의료비 급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2020년 6조3000억 원에서 2030년 28조 원, 2050년 102조1700억 원에 이어 2060년에는 132조 원에 이른다는 추정 수치도 있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비판 여론이 들끓자 내놓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오 위원장은 "현재의 부과체계는 직장권과 지역가입의 부과체계가 다르고 근본적으로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고소득층의 부과체계는 놔두고 저소득층만 개선하면 전체적인 부과체계 개편의 틀이 흐트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료 지출은 정부가 통제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재정 중립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며 "고소득층의 보험료를 더 거둬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깎아주는 순환 구조로 즉시 재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개편 중단 발표 이후 비판 여론을 확인했음"이라며 "사회적 에너지를 바탕으로 복지부 장관이 사과하고 청와대가 수급하고 재추진하는 수순을 밟으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박근혜 정부의 성과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줄여주는 데 필요한 재원은 현재 12조원 흑자인 건강보험재정을 우선 투입할 방침"이라며 "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반적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감 방안이 시행된 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치질·항문 가려움증 등 수술없이 치료 가능하다

마케팅 회사에서 근무하는 유정아(29)씨는 치질과 항문 가려움증이 재발해 업무에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해 치질 수술을 받은 사실을 동료들이 알게 될까 걱정도 크다.

치질로 수술대에 오르는 환자는 매년 20만 명이 넘는다. 그만큼 치질은 흔한 항문질환이다. 잘못된 식습관, 서구화된 생활방식 등으로 환자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치질을 치료하기 위해 내원하는 환자가 몇 년간 꾸준히 늘고 있다. 연령, 성별이 다양하고 수술 경험이 있는 환자들도 많은 편"이라고 밝혔다.

내치핵과 외치핵으로 나뉘며, 내치핵은 병기에 따라 1-4기로 구분된다. 초기 치질을 방치해 심한 치핵 돌출이나 출혈, 항문 가려움증이 나타나면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 증상이 가벼운 1-2기인 경우 비수술적인 치료로도 벗어날 수 있다.

문제는 증상 정도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치질 수술을 진행하다보면 상당한 통증으로 생활의 불편을 겪을 뿐 아니라 항문협착, 손상, 증상 재발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확한 상태를 살피고 적극적인 치료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손기정 일중환의원 한의학박사는 "항문과 주변 조직이 제 기능을 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치질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방에서는 상처를 치유하고 농을 배출시키는 황기, 항문 부기를 가라앉히고 열을 내리는 괴각, 염증을 없애고 어혈을 푸는데 도움을 주는 대계근과 같은 약재들을 사용한 한약과 연고 처방으로 치질을 치료한다"고 전했다.

중년 불청객 '오십견' 급증세

10명 8명 50대... 초기 관절운동 중요

흔히 '오십견'으로 불리는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십견 진료인원은 2008년 65만2951명에서 2013년 74만953명으로 연평균 2.56% 증가했다.

2013년 기준으로 남성 28만 8,346명, 여성 45

만 2,607명으로 여성이 남성의 1.57배였다. 반면 2008~2013년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3.55%)이 여성(1.96%)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 연령층이 전체 진료인원의 대부분인 82%의 비중을 차지했다.

인구수를 보정하면 70대가 인구 10만명당 5237명으로 진료인원이 가장 많았고, 60대(4277명), 80세 이상(3617명), 50대(3,028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40대 이상에서는 여성 환자가 남성에 비해 많았

고, 30대 이하에서는 남성 진료인원이 더 많았다.

또한 치료 현황을 보면 특히 수술 환자가 크게 늘었다. 2008년에는 2744명이었던 수술 진료인원이 2013년에는 9457명으로 연평균 28.08% 뛰었다. 전체 진료인원 증가율(2.56%)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다.

한편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재활의학과 홍지성 교수는 "오십견의 초기와 같이 비수술적 치료로도 호전이 가능한 시기의 환자들이 수술을 받는 비율이 증가된 것이라 생각된다"며 "수술을 받기 전 환자의 정확한 진찰과 상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등중 초기 체계적이고 꾸준한 관절 운동을 해야 빠른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슈틸리케 "우리 선수들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

슈틸리케 감독이 던진 한 마디 '뭉클'

울리 슈틸리케(61·독일) 축구대표팀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후 처음 치른 공식 대회였던 2015 호주아시아컵에서의 준우승에도 큰 만족감을 드러냈다.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31일 오후 6시(한국시간) 시드니의 호주 스타디움에서 열린 호주와의 2015 호주아시아컵 결승에서 연장 접전 끝에 1-2로 석패했다.

1960년 이후 55년 만에 우승을 노렸지만 개최국 후주의 벽을 넘지 못했다. 조별리그 3경기과 8강전, 4강전에서 기록한 무실점 행진도 깨졌다.

슈틸리케 감독은 "우리가 우승을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우승 트로피만 갖고 있지 않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승 못지 않은 활약을 보여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 선수들을 자랑스러워해도 된다. 미래를 향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슈틸리케호는 다음달 1일 귀국한다. 대한축구협회는 인천공항에서 환영회를 개최한다.

◇슈틸리케 감독 일문일답

- 아쉬운 준우승이다. 감독과 대표팀은 어떤 것을 발견했나.

"우리가 우승을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우승 트로피만 갖고 있지 않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승 못지 않은 활약을 보여줬다. 지인들에게 선수들이 열심히 싸웠다는 연락을 받았다. 양 팀



중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았을 경기였다. 무승부를 통해 2년씩 우승컵을 보관하길 바랐는데 그러지 못했다.(웃음) 팀이 적당한 시기에 좋은 대결을 펼쳤다."

- 박주호를 왼쪽 윙 공격수로 기용한 이유는.

"선발 명단은 호주를 철저히 분석해 내린 결정이다. 양 측면에 공격적인 선수를 기용하는 것은 리스크가 컸다. 상대 측면 풀백이 위협적이라 왼쪽 측면에 김진수와 함께 박주호를 기용해 수비를 안정적으로 하려고 했다. 손흥민에게 수비적 역할을 주문했는데 상당히 잘했다. 수비는 특별히 문제는 없었다. 전반 45분과 연장 전반 15분에 골을 먹으면서 정신적으로 경기를 뒤집기가 어려웠다."

- 0-1로 뒤지는 상황에서 한국영·김주영

등 수비적인 선수들을 투입한 이유는.

"0-1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근호를 넣으면서 공격적으로 변화를 주려고 했다. 남은 선수들은 쥐가 난 선수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 종료 5분을 남기고 광태위를 센터포워드도 기용했다. 체계적으로 공격 일선에서 싸워줄 선수가 필요했다. 이정협이 쥐가 나 교체를 요청했다. 그래서 했지만 오늘 최고의 경기를 했다."

- 그간 정신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했다. 향후 어떤 부분을 고쳐나가고 강조할 것인가.

"오늘 경기는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싸웠다. 2골을 내줬지만 정신력이 앞섰다. 고쳐야 할 점은 2번째 실점 장면에서 볼을 3분 정도 견어낼 수 있었는데 침착하지 못했던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질 것이다. 아직 7~10회로 A매치 경험이 많지 않은 선수들이 있어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 볼을 갖

고 있을 때 압박을 당하면 침착성을 잃는다. 개선해야 한다."

- 국민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 축구에 많은 희망을 얻었다. 국민들에게 한 마디 해준다면.

"한국어로 준비한 게 있다. 진심으로 느끼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 선수들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 미래를 향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겠다. 8일 전 훈련을 했을 때 4강에서 주전으로 뛴 선수들과 비주전 선수들로 10명, 11명으로 나왔다. 비주전 10명에는 8명의 필드 선수와 2명의 골키퍼가 있었다. 그중 한 명은 이번 대회에서 단 1분도 안 뛴 선수였다. 한국대표팀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정성룡을 보고 넘버원 골키퍼라 생각했을 것이다. 그만큼 모든 선수들이 열심히 했다. 준우승이지만 11명이 이룬 것이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이뤄낸 것이다. 대표팀의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다."

- 두 번째 실점 장면이 아쉽다고 말했는데 실수를 저지른 선수와 얘기를 나눴나.

"김진수가 실수를 했다. 나이가 상당히 어린 선수다. 독일에서 뛴 지 반년밖에 안 지났다. 미래가 밝은 선수다. 실수를 했지만 115분에 나온 것이다. 이 선수처럼 경기 내내 상대 진영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인간으로서 실수가 나올 수 있다. 김진수 본인의 미래가 창창하기 때문에 잘 만들어갈 것이다. 대표팀도 마찬가지다. 선수들과 직접적으로 얘기를 나누지 못했지만 호텔에 가서 얘기를 나눌 것이다. 일부 선수는 많은 관중 앞에서 뛰어난 경험이 없었는데 상당히 잘했다. 누가 원정이고 홈팀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잘했다. 기술적인 부분은 발전해야 하지만 정신력은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다."

막판까지 빛났던 손흥민의 투혼

아시아컵 통산 한국 100호골 달성

'손세이셔널' 손흥민(23·레버쿠젠)이 아시아컵에서 한국의 100번째 골을 성공시켰다.

손흥민은 31일 오후 6시(한국시간) 호주 시드니의 호주 스타디움에서 열린 호주와의 2015 호주아시아컵 결승전에서 후반 46분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리며 한국 아시아컵 통산 100호골의 주인공이 됐다.

한국은 1956년 홍콩에서 펼쳐진 초대 대회부터 이번 대회까지 총 12차례 아시아컵 본선에 출전했다.

그 사이 99번의 골 세러모니를 했고 이날 손흥민의 득점으로 통산 100호골 고지에 올랐다.

59년 아시아컵 출전 역사를 지니고 있는 한국에 '100호골'이라는 값진 기록을 안긴 주인공은 손흥민이었다.

이날 선발로 출전한 손흥민은 한국 공격수 중 가장 활발히 움직이며 호주의 골문을 두드렸다.



그는 전반 37분 김진수(23·호펜하임)가 올린 크로스를 그림 같은 눈스톱 원발 발리슛으로 연결하며 상대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특히 후반 46분 문전으로 쇄도하던 손흥민이 기성용(26·스완지시티)의 패스를 받아 천금 같은 동점골을 감동 그 자체이었다. 비록 연장 전반 15분 제임스 트로이시(27·윌더 바레함)에게 결승골을 허용해 한국이 1-2로 졌지만 손흥민의 동점골 덕분에 태극전사들은 연장 30분 동안 뜨거운 투지를 불사르며 축구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이미 한국대표팀의 에이스로 자리매김한 손흥민은 우즈베키스탄과의 8강에서 2골을 터뜨린 데 이어 이날도 1골을 더 추가하며 이번 대회에서 3골을 기록했다.

한국의 아시아컵 정상 탈환 도전은 준우승에서 막을 내렸지만 골잡이 손흥민은 이번 대회를 통해 다시 한 번 자신의 진가를 발휘했다.



대구광역시 13
2015년 2월 2일 월요일

‘나는 가수다’ 예능 버리고 음악 집중?

시즌3 시작부터 출연진 논란

MBC TV 서바이벌 프로그램 ‘나는 가수다’는 ‘일밤’ 내부 코너로 선보인 시즌1(2011)·2(2012)때부터 구설수에 자주 올랐다. 시즌1은 탈락한 김건모의 부활, 이소라의 태도 논란 등으로 들쭉였다. 시즌2는 서바이벌 자체를 유지한 채 생방송 체제를 도입, 가수들의 불안정한 무대로 방송을 불안케 했다.

30일 첫 방송을 앞둔 시즌3는 시작 전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밴드 ‘썸머타임즈’의 이수

가 첫 녹화를 마친 뒤 MBC에서 일방적인 하차 통보를 받았다. 첫 방송에서도 그의 분량은 ‘통편집’됐다. 네티즌들이 그가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복무 중이던 2009년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지적하고 나서면서 하차의 불씨가 됐다.

하지만 ‘나가수3’에서는 변화가 감지되기는 한다. 박정현·소찬휘·‘씨스타’ 효린·‘윌티드’ 하동균·보컬그룹 ‘스윗소로우’ 등으로 라인업을 꾸렸다. 특히 스위트소우는 고음이 아닌 화음의 맛을 내 줄 팀으로 기대를 모은다.



‘음악감상실’ 역시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음악과 경험을 바탕으로 경연에 참가하는 가수들과 무대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별도의 출연진으로 구성했다. 시즌1 당시 본의 아니게 외면 받았던 조규찬이 경연자 대신 ‘음악감상실’

멤버로 투입됐다. ‘나가수3’ 제작진은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멤버들인 만큼 감성적이고 전문적인 코멘트로 즐거움을 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비틀스 폴 매카트니 내한공연 재추진”

현대카드 사장 첫 내한 귀뜸

바이러스성 염증으로 인한 건강악화로 지난해 일본 투어와 한국 첫 공연을 취소한 영국 록밴드 ‘비틀스’의 폴 매카트니(73)가 올해 일본 투어 이후 첫 내한공연할 것으로 보인다.

매카트니는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4월21일 일본 오사카 교세라 돔에서 ‘아웃 데어 재팬 2015 컨펌(CONFIRMED)’을 시작한다고 공지했다.

같은 달 23·25·27일에는 도쿄돔 무대에 오른다. 도쿄의 또다른 공연장인 무도관 공연도 예정됐으나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와 동시에 업계에 따르면 5월2일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매카트니의 첫 내한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작년에 이 공연 주최사였던 정태영 현대카드 사장은 30일 트위터에 “광고를 재방송하기는 처음”이라며 유튜브에 게재된 영상을 링크했다. 약 15초 분량의 이 영상에서는 비틀스의 ‘헤이 주드’가 배경음악으로 흐르고 ‘앳 라스트’(At Last·마침내)라는 문구가 떠오른다.

현대카드는 이에 대한 확인을 아직까지 해주지 않고 있다.

앞서 바이러스성 염증에 따른 건강 악화로 매카트니는 지난해 5월17일부터 24일까지로 예정됐던 일본 ‘아웃 데어 재팬 투어 2014’ 4회 공연을 모두 취소했다. 일본 공연 직후인 같은 달 28일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에서 ‘현대카드 슈퍼콘서트 20 폴 매카트니’ 역시 무산된 바 있다.

매카트니는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로큰롤과 재미로 가득했던 일본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면서 “2013년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작년에는 퍼포먼스를 펼치지 못해 실망스러웠다. 그간 보내준 사랑 가득한 메시지에 감사하다. 곧 보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매카트니는 비틀스 시절부터 현재까지 세계 대중음악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음악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다. 비틀스로 활약할 당시 존 레논(1940~1980)과 함께 ‘에스터데이(Yesterday)’ ‘렛 잇 비(Let It Be)’ ‘헤이 주드(Hey Jude)’ 등의 대표곡들을 만들었다.

“한국무대 오르면 늘 기쁨의 눈물”

피아니스트 임현정 리사이틀 공연

피아니스트 임현정(29)을 떠올리면 영화 ‘인터스텔라’가 겹쳐진다. 그녀는 2013년 한국 데뷔 리사이틀을 앞두고 연 기자회견에서 피아니스트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와 아르투르 슈나벨은 3차원에서 5차원으로 간 음악가라고 했다. 피아노를 “단순히 악기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뼈를 알고 있는 연주자”라는 것이다.

3차원은 공간, 여기에 시간을 더하며 4차원이다. ‘인터스텔라’에 등장하는 5차원은 여기에 중력까지 덧붙인다. 영화 속에서 인류 운명을 바꿀 수 있도록 중력을 거스른 건 사랑이었다. 결국 마음과 마음이 통했다.

임현정은 최근 뉴시스와 전화 인터뷰에서도 ‘마음’을 이야기했다. 이번 한국 리사이틀에서 베토벤 소나타 ‘열정’과 ‘월광’,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곡 1집, 라흐마니노프의 회화적 연습곡을 연주하는 그녀는 “세 작곡가가 다르지만 작곡가마다 깊이 있게 들어가면, 이분들이 하나가 돼버리는 하모니가 있다”고 말했다. “인간의 영혼, 마음이다. 시대가 다르고 특성이 다르지만 모두 영혼이 깨어 있는 분들이 그래서 하나가 되는 순간이 있다.”

임현정은 지독한 학구파로도 유명하다. 베토벤 소나타 데뷔 앨범 녹음을 앞두고 베토벤의 편지 3000쪽을 읽고 연구했다. 구할 수 있는 베토벤 관련 서적은 모두 구매 탐독했다. 30곡의 소나타를 자신이 생각한 8개의 주제로 분류해 음반에 수록했다. EMI를 통해 발매된 임현정의 베토벤 소나타 전곡은 뉴욕 타임스, BBC 뮤직, 텔레그래프에서 호평받았다.

아울러 이후 발매된 음반은 물론 공연마다 들려주는 곡들의 해설도 자신이 직접 쓴다. 지난해 일본에서 바흐의 평균율에 대한 글도 썼다. 최근 “에세이와 음악 이론을 합친 책도 쓰고 있다”고 귀띔했다. “아직 정확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면서 웃었다. 이르면 올해 안에 읽어 볼 수 있다고 했다.

“임현정”하면 따라붙는 수식어도 많다. 2009년 벨기에 바젤에서 열린 쇼팽과 라흐마니노프의 연습곡 전국 연주회에서 앙코르곡으로 택한 ‘왕벌의 비행’이 유튜브에서 화제가 되면서 ‘유튜브 스타’가 됐다. 한국인 연주자 중 처음으로 빌보드 클래식 차트는 물론 아이튠스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영광스런 피리표도 있다.

임현정은 어느 수식어를 붙여도 상관 없다고 했다. “그런 관심이 그저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저 임현정이고 나란 본질은 바뀌지 않기 때문. 음악을 하는 사람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는 임현정은 한국에서 연주하는 것이 가장 감동적이라고 했다. “고향이기 때문이다. 한국 무대에 오르기 직전에는 항상 기쁨의 눈물이 난다. 존재의 이유가 느껴진다.”

4일 오후 8시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의 편지 3000쪽을 읽고 연구했다. 구할 수 있는 베토벤 관련 서적은 모두 구매 탐독했다. 30곡의 소나타를 자신이 생각한 8개의 주제로 분류해 음반에 수록했다. EMI를 통해 발매된 임현정의 베토벤 소나타 전곡은 뉴욕 타임스, BBC 뮤직, 텔레그래프에서 호평받았다.

아울러 이후 발매된 음반은 물론 공연마다 들려주는 곡들의 해설도 자신이 직접 쓴다. 지난해 일본에서 바흐의 평균율에 대한 글도 썼다. 최근 “에세이와 음악 이론을 합친 책도 쓰고 있다”고 귀띔했다. “아직 정확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면서 웃었다. 이르면 올해 안에 읽어 볼 수 있다고 했다.

“임현정”하면 따라붙는 수식어도 많다. 2009년 벨기에 바젤에서 열린 쇼팽과 라흐마니노프의 연습곡 전국 연주회에서 앙코르곡으로 택한 ‘왕벌의 비행’이 유튜브에서 화제가 되면서 ‘유튜브 스타’가 됐다. 한국인 연주자 중 처음으로 빌보드 클래식 차트는 물론 아이튠스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영광스런 피리표도 있다.

임현정은 어느 수식어를 붙여도 상관 없다고 했다. “그런 관심이 그저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저 임현정이고 나란 본질은 바뀌지 않기 때문. 음악을 하는 사람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는 임현정은 한국에서 연주하는 것이 가장 감동적이라고 했다. “고향이기 때문이다. 한국 무대에 오르기 직전에는 항상 기쁨의 눈물이 난다. 존재의 이유가 느껴진다.”

4일 오후 8시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피아니스트 임현정 리사이틀 공연

국내 미술시장 빙하기 지속

화랑 113곳 판매실적 제로

전년비 26.2%↓ 침체 지속

2013년 국내 미술 시장규모는 3249억원(작품판매 금액 기준)으로 전년(4405억원)보다 26.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술경영지원센터가 30일 발표한 ‘2013년도 기준 국내 미술 시장 규모’에 따르면, 3000억원 대로 떨어지기는 2007년 이후 처음이다. 2007년 6044억원, 2008년 4559억원, 2009년 4085억원, 2010년 4835억원, 2011년 4722억원이었다.

화랑·경매회사·아트페어 등 주요 유통영역이 3198억원(20.5% ↓), 미술은행 등 공공영역은 724억원(6.9% ↓)으로 집계됐다.

주요유통영역 작품거래 현황(작품판매금액 3198억원·판매작품 수 3만5164점)을 보면,

판매 작품 수는 2012년보다 28.4% 증가했지만 작품판매금액은 20.5% 감소했다. 이는 전반적으로 중저가 작품의 판매량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화랑 시장 규모는 1945억원, 판매 작품 수는 3만5164점이었으나, 작품판매 실적이 없는 화랑은 전체의 26.2%(113곳)를 차지했다. 시장규모(작품판매금액 기준)의 약 80%를 차지하는 상위 10개 화랑의 작품판매 실적도 2012년의 2453억원보다 32.4%(1658억원) 감소하며 미술시장의 침체를 나타냈다.

경매 시장 규모는 2012년보다 30.6% 감소한 592억원으로 주요유통영역 중 감소폭이 가장 컸다. 판매 작품 수는 22.3% 증가한 9869점으로 조사됐다. 특히 6000만원 미만의 작품판매량(판매 작품 수 기준) 비중이 2012년 93.8%에서 2013년 97.9%로 증가하며 중저가 시장의 확산을 보였다.

아트페어는 주요유통영역 중 유일하게 증

가했다. 시장규모는 2012년보다 57.3% 증가한 661억원, 판매 작품 수는 42.7% 증가한 1만5373점이었으나, 무엇보다 16개 화랑참가 아트페어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평균 작품판매금액이 2012년 22억원에서 36억원, 평균 판매 작품 수는 294점에서 622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공공영역은 전년보다 6.9% 감소한 724억원이다.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금액은 전년보다 5.4% 감소한 587억원, 미술관은 15.2% 감소한 120억원이다. 미술관의 작품구매금액도 하락했다. 이는 2012년보다 21.2% 감소한 국공립 미술관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는 미술 시장의 주요유통영역인 화랑(432곳), 경매회사(11곳), 아트페어(35개)와 공공영역인 건축물미술작품, 미술은행(작품미술은행), 미술관(185곳)의 운영 현황, 작품판매 및 구매 현황 등을 조사·분석한 결과다.

1595년 사이 쓰인 것으로 학자와 정치가 예술인들 글씨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는 퇴계 이황, 학봉 김성일, 미수 허목을 비롯해 허균(1569~1618)의 형인 허성(1548~1612)과 허봉(1551~1588)의 글씨도 포함됐다. 이들의 작품이 시장에 나오기는 처음이다.

여기에 포함된 대부분은 명필가이자 감식가로 유명한 위장 오세창(1864~1953)이 보유한 작품이다. 추정가는 2억원이다.

근대 인물 45인의 서첩도 있다. 이승만과 김구, 삼민주의를 제창한 조소앙,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조만기, 신민회를 조직했던 유동열, 김구식과 함께 민족혁명당을 창당한 최동오, 흥사단 운동에 헌신했고 세브란스병원장을 지냈던 이용설, 안창호와 함께 동우회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던 김병연, 3.1 운동 주도 후 임시정부 국무원 비서장 등을 역임한 김병준 등의 글씨가 포함됐다.



서울옥션 측은 “백범의 글은 경매에서 가끔 만날 수 있지만, 이번처럼 10폭 병풍으로 구성된 대작이 나오기는 처음”이라며 “백범 글씨 가운데 매우 귀한 작품”이라고 소개했다.

조선 중기 명현 50인의 시와 서간을 엮어첩으로 만든 작품도 주목된다. 1501년부터

백범 김구 10폭 병풍 새 주인 찾는다

서울옥션, 10폭 병풍 경매 내놔

백범 김구(1876~1949)의 10폭 병풍이 경매장에 나온다.

30일 미술품 경매사 서울옥션에 따르면, 2월11일 오후 2시 서울옥션 홈페이지(www.seoulauktion.com)에서 열리는 ‘제4회 이비드나우(eBID NOW)’에 백범의 10폭 병풍이 추정가 1억에서 1억5000만원에 출품된다.

백범이 평소 좋아하던 9편의 시가 9폭을 장식하고 있다. 마지막 폭에는 글을 쓴 장소(임시정부 주석관공실)와 시기(1947) 등이 적혀 있다. 한의사이자 독립운동 자금원이었던 최석봉에게 써준 작품이다.

여가부-7개 지자체, 여성친화도시 협약 체결

여성가족부는 2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7개 지방자치단체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맺는 지자체는 부산 북구·금정구·영도구, 경기 고양·김포, 충남 홍성, 경남 거창 등 7개 지역이다. 이들은 지난해 여성가족부에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서를 제출해 심사를 거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 더불어 지난 2009년에 여성친화도시 1호·2호로 지정되었던 익산시와 여주시도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심사해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됐다.

여성친화도시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행정 단위를 말한다.

여성친화도시들은 화장실 내부 기저귀 교환대 설치, 돌봄자 편의 시설 설치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농촌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 사업, 등하교 안전·놀이·체험 등 가족 품앗이 사업, 여성친화기업 인증제 등 다양한 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양성이 평등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해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여성친화도시가 계획대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서는 자치단체장의 조성 의지와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마른 체형문화 지적하다 올리비아의 비만장애 탈출기

통통한 젊은 여성 올리비아는 날씬한 몸매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사회 환경에 풍뎡한 여자가 겪는 온갖 차별을 경험한다.

이탈 적부터 엄마는 비만한 딸의 장래를 걱정한다. 자매들은 동생의 ‘후진’ 몸매를 부끄럽게 여긴다. 친구들은 그녀를 따돌리거나 자신을 빛내줄 열등 비교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 책은 비만 장애를 극복한 여성의 실제 사례와 의사들의 조언이 수록된 그래픽노블이다. 정신과 전문의 크리스토프 앙드레는 ‘날씬한 몸매’의 압박에 시달리는 여성들이 알아야 할 사실들을 조목조목 짚어준다.

어떻게 ‘비만 콤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들려준다. 올리비아 아지몽·크리스토프 앙드레 지음, 유진원 옮김, 이숲





영천, 지방자치경영대전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

항공전자부품산업발전 지역개발 부문

영천시는 지난 2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지역개발부문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은 전국 200여개 기초·광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자치부와 한국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정부부처가 후원해 지역개발, 지역소득증대, 지역일자리, 상권 활성화, 문화관광, 농축특산물, 기업환경개선, 복지서비스, 환경관리 등 9개 부문에 걸쳐 모범적인 지방자치정책 시행으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를 발굴·시상한다.

영천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한계 극복을 위한 역발상으로 2009년부터 항공우주부품산업 육성계획을 추진, 2010년 정부로부터 항공전자산업 특화지역으로 지정됐고, 2012년 보잉사 항공전자 MRO센터 유치와 2013년 대통령 미국 방문시 1억불 투자를 이끌어 내면서 관련기업을 유치하고, 미래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시책들이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아 20년 만에 인구가 늘어나고, 토지 거래량 증가, 지가 상승과 함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등 대한민국 동남권 발전의 중심도시로 도약한 것이 큰 호평을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영천시 관계자는 "항공전자부품산업의 중심 도시이자 아시아의 항공수도로 비상하기 위한 노력들이 영천의 성장성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면서 "앞으로 에어로테크노밸리 조성 및 항공관련 기업유치, 전문인재 양성 등 시민과 함께 열심히 일해 영천발전의 백년대계를 굳건히 세우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일만 기자



고령 금류1차부녀회 사랑나눔 어려운 이웃에 쌀 15포 기탁

다산면 금류1차 부녀회는 지난달 29일 다산면 사무소를 방문해 관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달해 달라며 사랑의 쌀(10kg/15포)을 기탁했다.

기탁된 쌀은 지난달 26일 금류1차 아파트 입구에서 개최된 바자회의 수익금으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발을 동동 구르며 이장 및 부녀회원들이 직접 마련한 사랑의 쌀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김용현 다산면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 실천을 해 주신 금류1차 성기장 이장님 및 최선희 부녀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면서 "다산면에서도 나눔을 통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손길이 지속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양수 기자

상주로타리클럽 사랑나눔 실천 독거노인·장애인 보행보조기 지원

상주로타리클럽은 2일 모서면을 방문, 평소 거동과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독거노인 및 장애인들의 보행편의와 건강한 생활에 보탬을 주기 위해 보행보조기 16대를 기증한다.

현재 상주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5개 로타리클럽(상주, 함창, 새상주, 상주연화, 상주중앙) 회원들은 해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경수감사도입순력행사 재현, 각종 장학금 지급,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 등 일련의 봉사활동을 하며 소외된 이웃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독거노인뿐 아니라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정 등을 찾아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앞장서 본보기가 되고 있어 지역복지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김해동 상주로타리클럽 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려운 이웃이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참된 봉사를 몸소 실천, 적극적인 사랑 나눔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더 나아가 밝은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재영 기자

'여성친화도시 꿈꾸는 칠곡' 함께 만들어요

새해벽두부터 읍면 연두순방 여성친화도시 조성 홍보 박차

칠곡군은 지난달 27일부터 읍면 연두순방과 함께 '여성친화도시를 꿈꾸는 희망도시 칠곡'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새해벽두부터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성친화도시(Women Friendly City)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행정단위'를 의미한다.

즉 여성만의 편의증진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근본이념으로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따른 불편을 개선해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말한다.

칠곡군은 우선 추진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오는 3월중 군민참여단을 모집해 도시전반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를 설정한다고 전했다. 이후 5월중 조례제정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계획 수립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한 여성단체를 비롯한 각 사회단체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대군민 교육과 홍보를



통해 여성친화적인 지역의 특성화된 과제 발굴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이런 과정을 토대로 여성 친화도시 조성계획서를 작성해 9월까지 경북도에 신청

하고, 10월중 여성가족부에 제출해 공정한 심의를 통해 12월에 최종 확정 받게 된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지역정책 전반에 안전과 편의, 참여와 성장에 대해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요구를 반영해 지역 곳곳에 변화

를 만들어 가겠다"며 "양성이 평등한 지역 사회를 조성해 여성과 가족 나아가 지역민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찬 포부를 밝혔다.

안성민 기자

구미,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최우수상

2013년 우수상 이어 2014년도
최우수상 2년 연속 수상 쾌거

구미보건소는 지난달 29일 경북도청 강당에서 개최된 2014년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이번 수상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 추진실적, 성과 등 시민 건강증진에 크게 이바지한 기관에 수여했다.

구미보건소는 2013년 우수상에 이어 2014년도 최우수상까지 2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룸으로써 명실상부한 명품 건강도시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됐다.

2013년부터 시행하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기존의 중앙정부 중심의 상의하달식 사

업운영에서 벗어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주민 요구에 맞는 사업을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지역사회 보건으로 유관기관과 함께 협력하여 운영하는 하의상달식 건강관리사업이다.

구미보건소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성인, 노인, 아동청소년 등 대상군별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한 내·외부자원 연계 협력 방안 마련, 잠재적 보건외료자원 발굴, 주민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건강현황 및 지역주민의 서비스 요구도 파악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우수사례로 선정된 통(通)하는 삶터, 건강한 일터를 위한 건강한 사업장 만들기 등 심사위원들로부터 최고의 점수를 받았다.

김기환 기자



경산 세명병원,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 기탁

소외된 이웃 나눔실천 감동 전파

서명의료재단 세명병원이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다져 지난달 29일 경산시청을 방문해 '희망



2015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경산 중앙동에 소재하는 서명의료재단 세명병원은 지역민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노인들을 위한 무료진료, 무료급식소 물품후원 및 배식봉사, 음악회, 사랑의 바자회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매년 '희망2015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품)을 경산시에 기탁해오고 있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올해도 변함없이 이사장과 임직원들이 모은 성금 500만원을 기탁해 소외된 이웃을 위한 끊임없는 나눔 실천으로 주위에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경제 불황속에서도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보내주시는 서명의료재단 세명병원 임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러한 나눔 문화 실천이 지역사회 내에 정착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경문 기자

계명대 이명숙 교수, 정보문화실천 공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 수상 '영예'

지역 ICT 확산, 정보격차 해소
인터넷 윤리 마인드 확산 공로



윤리 교사·강사 연수, 고등학교 제작교 연구, 초등 SW교육을 위한 스크래치 교육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계명대 교양교육대학 이명숙(46·사진) 교수가 최근 정보문화실천 유공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건전하고 창조적인 정보문화를 확산하고 따뜻한 사이버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매년 사회 각 분야에서 국가사회 정보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을 발굴, 정부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계명대 이명숙 교수는 지역 ICT 확산, 정보격차 해소, 인터넷윤리 마인드 확산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특히 이 교수는 대학교수 및 인터넷윤리실현협의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초·중등 교원정보소양시험운영, 정보활용능력자격시험 출제·채점위원, 대구·경북 교원·공무원 정보화 연수, 대학생 인터넷윤리교육, 인터넷윤리자격시험 출제위원, ICT 및 인터넷윤리 교재개발, 육·공군 인터넷윤리 장교양성교육 연수,

계명대 교양교육대학 이명숙 교수는 계명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컴퓨터공학) 학위를 받았다. 2013년부터 계명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최경수 기자



성주군별고을장학회 기금기탁 줄이어

(주)에코청진 200만원 이어
이장상록회도 100만원 기탁

(주)에코청진(대표 박명진) 2000만원, 월항면 이장상록회 100만원을 재단법인 성주군별고을장학회에 기탁했다.

선남면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보차도용 인터로킹블록, 경계석, 옹벽블록을 생산하는 지역의 건설업 중견업체인 (주)에코청진, 평소 지역주민들의 손과 발로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늘 힘쓰는 월항면 이장상록회는 "지역



의 백년대계인 인재육성을 위해 우리군 인재양성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보탬이 되고, 전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항근 (재)성주군별고을장학회 이사장은 "(주)에코청진 박명진 대표, 월항면 이장상록회의 장학기금 기탁에 감사드리며, 올미년 한해도 사회 곳곳에서 심심일만 자발적 기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두상 기자



오늘... 생각한다

■ 차욱환의세상이야기

장애인의 봄을 기다리며



차욱환
본지 주필

봄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입춘이 내일 모레이다. 새로운 해의 시작을 의미하는 이날에는 모든 행복을 나타내는 글귀를 대문이나 기둥, 대들보, 천장 등에 써 붙이는데 이러한 풍습은 오늘날에도 행해지고 있다. 다만 상중에 있는 집에서는 하지 않는다. 입춘은 새해를 상징하는 절기로서, 이날 여러 가지 지속적인 행사가 행해진다.

그 중 하나가 입춘첩(立春帖)을 써 붙이는 일이다. 이것을 춘축(春祝), 입춘축(立春祝)이라고도 하며, 각 가정에서 대문기둥이나 대들보, 천장 등에 좋은 뜻의 글귀를 써서 붙이는 것을 말한다. 입춘 날 대문이나 집안 기둥에 '입춘대길(立春大吉)' '건양다경(建陽多慶)' 같은 입춘첩(立春帖)을 써 붙인다. 여기에는 한 해의 무사태평과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뜻이 담겨 있다. 더불어 어둡고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었음을 자축하는 뜻이기도 하다.

올해의 입춘은 2월 4일, 봄에 들어섰다고

하나 아직은 겨울을 지나가는 중이다. 대구의 낮기온은 섭씨 5-6도이지만 체감온도는 한 겨울 그대로이다. 그런 중에도 별다른 남향에 매화꽃 망울이 빨갛게 부풀었다. 대지는 아직 얼어붙어 있어도 천지만물에 봄기운이 돌고 앙상한 가지마다 파릇파릇 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입춘절의 모습이다. 하지만 우리들의 세상살이는 엄동설한의 한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할 만큼 했는데 지쳐서 그런다. 내가 죽더라도 인니는 좋은 시설보호소에 보내주세요. 장기는 다 기증하고 월세 보증금도 사회에 환원하길 바랍니다.” 혼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적장애인 언니를 보살피던 대구의 류모(여·28) 씨가 목숨을 끊으면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남긴 글이다.

류 씨는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적장애 1급인 언니(31)를 홀로 돌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 씨는 기초생활수급자 언니와 둘이 살았다. 숨진 류 씨는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도 곧바로 재가하면서 연락이 끊기자 언니와 함께 할머니가 있는 삼촌집에 맡겨져 자랐다. 지난 2007년 류씨의 언니가 아무런 말도 없이 집을 나가자 언니를 찾아 전국을 돌아다니던 끝에 부산의 한 장애인시설에서 언니를 찾았다. 그 뒤 대구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았지만 1년 전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생활이 어려워져 류씨는 언니를 시설보호소에 보내기도 했지만, 언니가 류씨와 함께

살기를 위해 함께 생활해왔다. 류씨는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생활이 나아지지 않아 수차례에 걸쳐 언니와 동반자살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언니가 거부하는 의사표현을 분명히 하자 류씨 홀로 죽음을 택한 것이다.

두 자매의 비극은 장애인복지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류씨가 자살하기 열흘 전쯤 주민센터를 찾아 도움을 청했지만 생계비 49만 원 뿐이라는 대답뿐이었다. 시설되소자립정착금 5백만원과 장애인돌봄서비스가 있었지만 해당시설에서 신청조차 하지 않았고 주민센터도 그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다. 지난해 2월 송파 세모녀 사건도 “긴급복지지원금”제도를 알려준 사람이 없어서 벌어진 일이었다. 그 뒤 ‘세모녀법’을 제정했는데도 일선 현장에서는 그 법조차 활용하지 않고 있다. 벼랑 끝 위기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 간 류씨를 꼼꼼히 챙겨 주었다면 생길리가 없는 비극이다.

복지정책을 펴는 정부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복지대상을 줄이려 하기 때문에 대상 선정규정이 매우 까다롭고 복지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복지행정도 기대하기 어렵다. 심지어 한때 복지 대상이었는데 자격을 박탈하는 일이 드물지 않다.

복지사각지대를 찾아 도움을 주겠다는 대구시의 말도 결국 걸치레였다. 류씨가 언니와 함께 수차례 자살을 시도했고 20일에도 자살을 시도하다 구조됐지만 관계당국의 도움이 없었다고 하니 눈감은 복지행정이다. 대구의 위기가정발굴체계는 아직도 고장 난 상태이다. 장애인의 복지는 엄동설한의 한 가운데에 갇혀 있다.

■ 나의제언

“사랑한다” 교장선생님의 학교폭력예방



김국진
고령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은 늘 불안하다. 학교폭력의 외상에 관한 기억이 자주 떠올라 고통스럽고, 그와 관련된 악몽에 시달리기도 한다. 사소한 일에도 심하게 놀라고, 항상 불안해하며, 심지어 위협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막연한

불안감을 느낀다고 한다. 그런데도 그들은 학교폭력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해결책을 포기한 채 ‘학습된 무기력감’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기에 우울함과 절망감을 넘어 무기력감에 빠지게 된 것이다.

학교폭력의 문제는 정년 해결하기 힘든 것일까? 2011년, 정부는 “학교폭력은 학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며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사회 구성원이 각자의 입장에서 학교폭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렇듯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경찰에서는 작년에

학교전담경찰관을 증원하고 등·하교 시간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는 등 학교폭력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경찰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학교 내·외에 배치하는 것은 범죄 취약장소를 순찰하고 잠재적 범죄 행위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다. 하지만 이러한 경찰력 행사만으로는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없다. 교육당국과 경찰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광주에 한 학교에서는 등교시간 연출되는 색다른 풍경은 학생들로부터 눈길을 끌었다. 이 학교 교장은 매일 아침 교문 앞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인자한 웃음과 함께 일일이 손바닥을 마주치며 “사랑한다”는 인사를 건넨다.

별것 아닌 행동으로 볼 수 있으나 가정불화나 결손가정으로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아이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

대구·경북 혼연일체로 1천만 관광객시대를

대구시와 경북도의 상생발전행보가 무척이고 있다. 2016년을 ‘대구경북 방문의 해’로 정하고, ‘한뿌리운동 사업’의 일환으로 중화권 관광정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한 것도 그 본보기다.

대구의 도심관광자원과 경북의 역사·전통관광 자원을 연계한 협력적 관광홍보·마케팅을 통해 중화권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공동 협력사업을 펼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작년 7월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2015-2016년을 상호 방문의 해로 지정하고, 양국간 인적교류 1천만명 시대를 열기로 합의된 사항을 반영해 중화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2016대구경북 방문의 해’ 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한 바 있는데 올 들어 그것을 구체화하게 된다.

시·도는 지난 30일 대구시청에서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는 ‘2016 대구경북 방문의 해’ 사업을 위해 두 지자체 문화체육관광국장 주재로 실무협약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겸한 사업보고회를 가졌다. 중화권을 타깃으로 한 사업추진 방향성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들었고, 그동안 실무차원에서 논의된 사업의 구체화 및 성공추진

을 위한 협업추진 시스템 점검과 세부 사업계획 마련, 2월부터 본격 진행할 방침도 굳혔다.

대구-경북간의 역할분담이 있다. 대구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만족도 높은 관광안내를 위해 ‘대구관광 전담가이드’를 양성하고 모노레일, 한류드라마 촬영지, 대형축제 및 스포츠이벤트 등을 연계한 특화관광상품 개발과 개별 관광객에 대한 맞춤형 프리미엄호텔 등 ‘달구벌관광 프로젝트’를 준비하게 된다. 경북은 수요자 맞춤형의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개발해 중화권 소셜미디어의 홍보강화, 중화권 유학생을 활용한 기자단운영 및 기업인센터 관광단 유치활성화사업을 계획 중이다.

세계 정상들이 모이는 ‘세계물포럼’을 대구-경북에게 두 번 다시 돌아오기 어려운 관광의 호기로 삼아야 한다. 물포럼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다양한 파급효과를 끌어내어야 한다.

시·도의 역량을 총결집하면 ‘1천만명관광’ 이상의 목표도 가능해진다.

결국 대구-경북이 얼마나 혼연일체로 땀 흘리며 노력했느냐에 달린 일이다.

건보개혁, 고소득자 반발에 멈춰선 안 돼

지난 1년 반 동안 준비해 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백지화 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청와대가 여론의 파고를 넘고 있다. 이유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27%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하후상박’ 개편을 추진하다 발표 직전에 백지화 한 때문이다. 국민들의 대다수가 개혁 방향에 동감하는데 정부가 일부 부유계층의 반발에 무릎을 꿇은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3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발족해 1년 6개월 이상 검토해온 개편안에는 45만명 정도의 고소득 직장인과 종합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부담을 늘리는 대신 수입이 없거나 저소득층인 지역가입자들 602만명 가량의 건보료 부담을 줄이는 개혁안이 담겼다.

개혁안에 따르면 소득 상위 1.5-6% 그룹은 건보료가 오르는 반면 저소득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 27% 정도는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근로소득으로만 생활하는 직장가입자는 사실상 건보료 부담분이 바뀌지 않는다. 특히 ‘최저 보험료 제도’는 정액 형태로 부과해 소득이 낮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 제도를 실제 도입하면 생활고로 스스

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의 월 건보료는 월 5만140원에서 1만6480원으로 줄어든다.

이처럼 좋은 개혁안을 발표 전날 없던 일로 해 버린 것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올해 안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만들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비판의 목소리가 물끓듯하자 29일 청와대가 나서 “백지화가 아니다”고 진화에 나섰다. 연세준 박이 가지 않는다. 올해를 넘기면 내년은 총선선거가 있다. 물 건너 갔다는 말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건보료는 지역과 직장에 따라 부과형식이 달라 형성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5억원이 넘는 재산과 연 2300여만원의 연금소득이 있는 실직자는 직장가입자인 아내나 자녀의 피부양자가 되면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반면 반지하 셋방에서 힘겹게 살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모녀’는 매달 5만원이 넘는 건보료를 낸 것이 극명한 자료이다. 근로소득 외에 임대-사업-금융 등 종합소득이 있는 고소득 직장인과 고소득 피부양자가 평균 10만-20만원의 건보료를 더 내는 개편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

신문맛이 달라지면 신문 내용도 달라져야 합니다. 대구광역시 '독자의 가슴'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 : www.dgy.co.kr 전자우편 : dgynews@daum.net 발행인 정주필 | 대표 김성용 | 편집인 겸 편집국장 최학봉 | 주필 차욱환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25(8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 표 053-267-9000 경영지원국 053-267-5000 광고국 053-267-0800 문체부 053-253-0065
부사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67-0600 시회부 053-253-0060 지방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임원실 053-267-0700 정경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경시의 푸른 산림, 산림조합이 만들어 갑니다.

01 사유림경영지도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한 경영지도 지원 사업
대규모 경영지도사업 추진

02 임산물유통
임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
임산물 유통사업 추진

03 산림경영기반구축
산림경영기반구축 사업 추진
산림경영기반구축사업 추진

04 금융지원업무
농업경영 지원 및 농민지원사업 추진
금융지원사업 추진

산림마트

산림마트 성업중

문경시산림조합
조합장 이규우
경북 문경시 대동1길 67(오전동)
전화 554-9500 9600 FAX 554-9600

Balenkey
 골프웨어 아웃도어 발렌키



장윤정·홍원빈
 촬영: 김민수/오앤비

골프웨어 아웃도어 **발렌키**

단체복 주문 제작합니다!
 (회사근무복, 각종 행사, 단체티셔츠)

문의전화 053-552-7088
 (24시간통화가능) 010-4181-0000